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溶漢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十一番地 朝鮮日報社

社說

平和冀求의 裏面
平和協定締結說에 接하야

一

數日前 華盛頓電은 루즈벨트大統領이 再選되는 날에는 世界平和會議를 召集할 意圖를 가젓다는 報道를 傳하야 不少한 反響을 이르켯거니와 다시 二十九日의 紐育電은 英米佛三國間에 平和維持와 通商障碍를 除去하기 爲하야 非公式協定을 締結할 案이 考慮되고잇스며 英國에서도 이 實現에 注力中이라고 傳한다. 前者나 後者가 모다 現實에 提議 或은 締結된 것이 아닌 以上 그것이 直接 論議의 對象이 되지는 못하나 그러나 元來 平和가 人類의 理想인 以上 그것을 冀求하는 人心에 古今東西의 別이 잇스랴마는 戰後에 平和에 對한 欲求가 더욱 强烈한것과가티 事情과 時期를 따라 人類의 感情에도 高下가 잇는것이니 昨今의 世界가 安全保障의 再建과 平和維持에 對하야 그關心의 度를 놉히고잇는 것은 곳 平和에 對한 脅威、換言하면 戰爭에 對한 危機가 刻刻으로 深化되고잇다는것을 裏書하는것이라고 할수잇다. 또 그만큼 刻刻으로 到來하는 危機에 對한 人類의 關心과 될수만 잇다면 避하고저하는 人類의 理想이 强烈한 欲求化할것도 自然스러운 歸結이라고하겟다.

二

이제 吾人이 全世界를 一瞥한다면 世界大戰後 熱烈히 要求된 平和意識속에서 提唱된 國際的安全保障의 樹立과 軍備縮少의 兩命題는 地上에 平和를 齎來할 가장 科學的인 方法이엇슴에도 不拘하고 有耶無耶裡에 解消되어 失敗에 歸하여버리고 다시 祕密外交와 競爭的軍備擴張은 滔滔의 勢로 世界를 風靡하고 잇다. 赤字로서 支辨하는 尨大한 軍事費가 結局은 將次는 國民을 窒息할 危險性을 가젓슴을 明確히 내다보면서도 이는 不可避的으로 要求되고잇스며, 通商障碍가 列强의 各自를 互相經濟的破綻에로 끌고가는줄 알면서도 障壁에는 또다시 障壁으로써 對抗하야 同一한 經濟블럭以外에는 所謂 通商戰爭이라고 할만한 現象을 現出하고잇는터이며, 安全保障의 强化라는 名目下에 所謂 相互援助와 軍事同盟을 締結하는 現象이 傳染病과가티 流行하야 오히려 安全保障을 破滅할 危險을 增大하고 잇다. 이모든것은 날로 人類를 不安과 焦燥의 渦中으로 驅使하고 잇는터이니 人類는 一方에 잇서서 自己 무덤을 스스로 파면서 一面으로는 平和를 要求하는 理想을 吐露하고잇다. 이러한 現實과 理想이 交錯되는 矛盾의 環境속에서 엇더케 꼬잇는것이 十字街頭의 世紀的 話題일가?

三

이러한 環境속에서 眞正한 平和를 要求할수잇스랴? 그러타고 吾人이 平和에 對한 人類의 「아피일」을 輕視하거나 評價하려는者가 아님은 勿論이다. 然而하고 實現可能性이 稀薄하면할사록 우리의 憧憬과 欲求는 更一層 强하고 또한 이를 高價로써 評價하고저한다. 그러나 人類生活의 矛盾、現代의 危機는 結局 現代文明 그自體로부터 오는것이니 現代文明이 보담더 노픈 文明의 階段에로 나아감이 업시는 一朝에 解消되지 안흐리라는것은 現代國家間의 危機가 獨伊,獨蘇國間의 關係와가티 相容될수 업슬것가튼 對立性을가진 國家群을 包含하고잇는限 解消되기는 至難한것과 마찬가지며 아모리 現狀維持로써 平和維持의 첫條件으로 삼는 英佛가튼 國家로서도 現狀打破로써 國是로삼고잇는 獨伊가튼 國家와 列을가티하고잇는 동안에는 그들의 意欲의 世界를 防止할수는 업슬것이다. 國家對國家의 關係가 이러하고 國家內部에 잇서서는 階級이 尖銳한 對立을 示하고잇는 歐洲이니 만큼 平和에 對한 欲求는 更一層 强할것은 事實이지만 이미 試驗한대로해본 國際聯盟式 制度를 理想으로 삼는 某某 政治家들이 主張하는 局部的 安全保障案으로 平和를 齎來할수가 잇겟는가? 平和會議를 召集한다자 美國으로써 終了할것이 틀림업는 海軍協定이오 平和協定을 締結한다자 結局 一片의 空文化할것이 아닌가하는 疑惑를 먼저 스치간다. 이러한 平和的 제스츄어 乃至 政治的技巧로서 救하기에는 世界的 現實은 너무도 深刻한 危機를 內包하고잇는것이 아닌가? 吾人은 爲先 平和會議나 平和協定說等에 對하야 그것이 人類의 欲求를 表現하고 또는 理想을 明示하는데 敬意를 表해두고저할뿐이다.

赤色民團軍脅威로 駐西獨大使館移轉
叛軍、토레도에서의 勝捷放送
이룬戰線은膠着狀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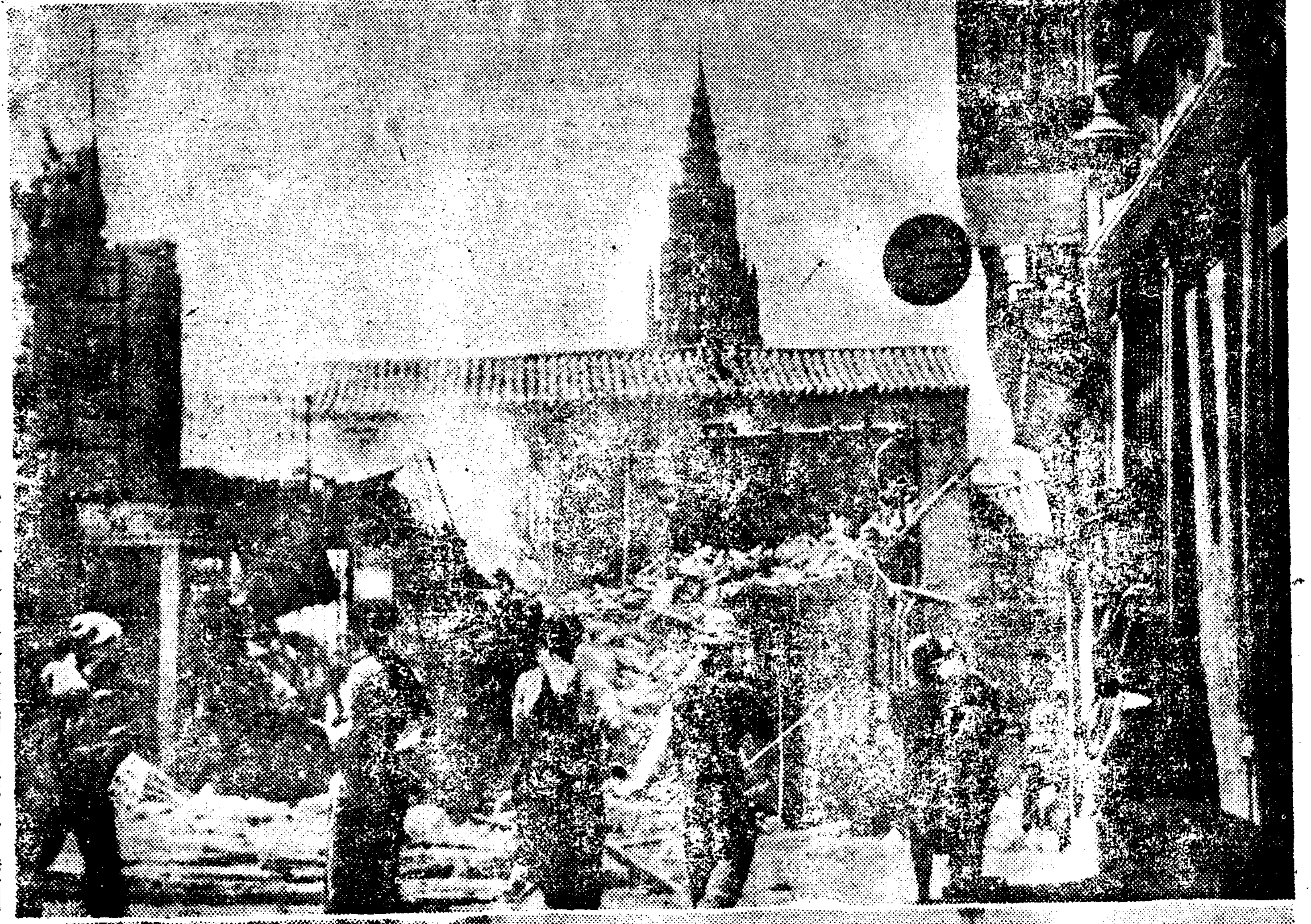
【伯林卅一日發同盟】마드리드駐剳獨逸大使館은 卅一日 本國政府의 訓令에 接하야 即時 首都를 撤收하야 南方地中海의아리칸데로 移轉하엿다 右는大使館側의 屢次의 注意喚起에도不拘하고 西班牙政府當局이 集團保護에 任치안헛기때문이라고하는데 獨逸政府機關紙는 大使館移轉問題에 關하야 如左히 論하엿다 西班牙政府는 最初 正規警察隊를 派遣하야 大使館保護에 任하고잇섯는데 다음에 赤色民團軍이 交替함에 이르러 大使館의 不可侵權은 全혀保持되지안케되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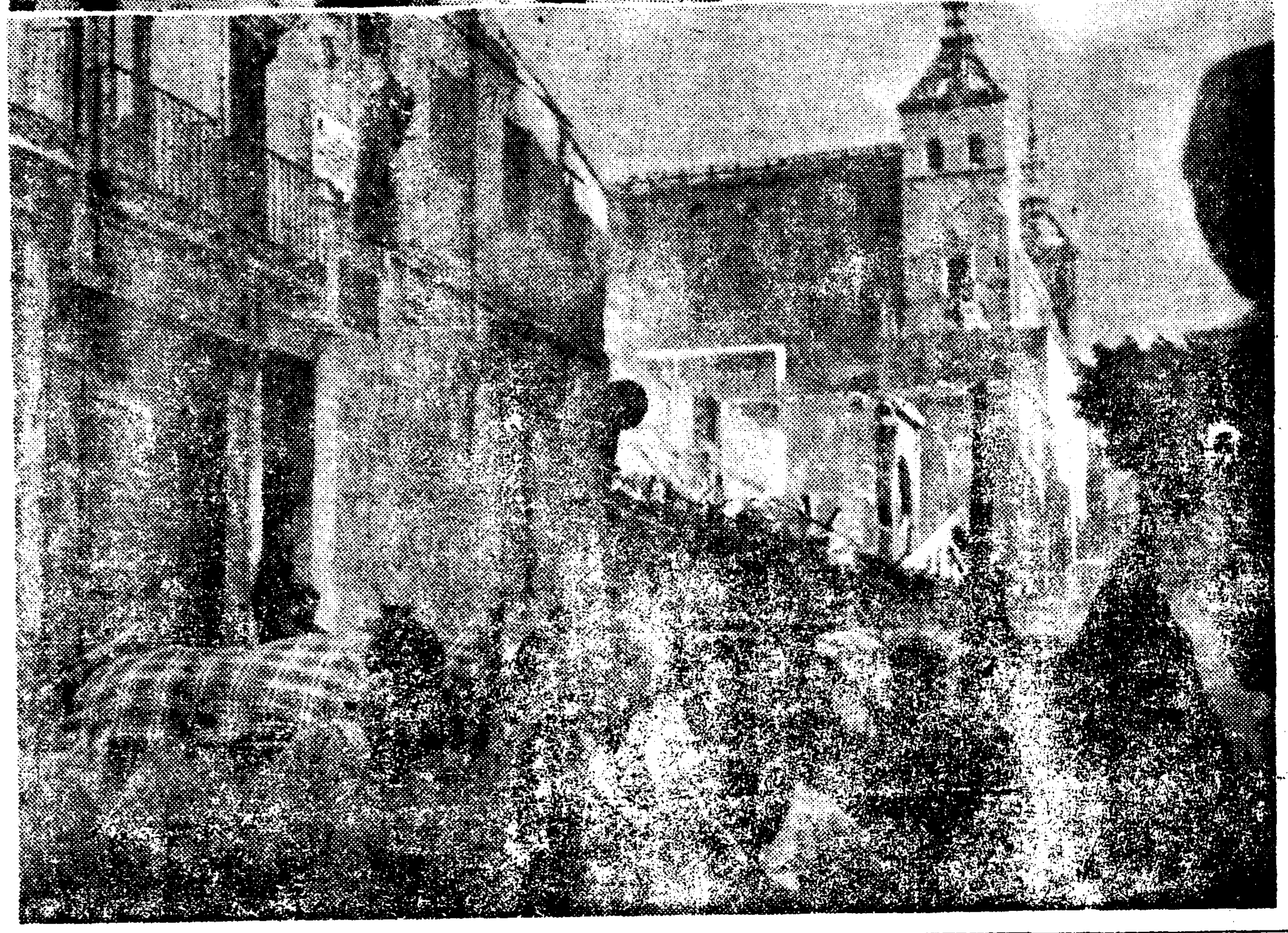
【세빌리아卅一日發同盟】叛軍放送局의 放送에依하면 二十八日以來 三日에 亘하야 南方四十哩의 토레도市에 展開된戰鬪에서 叛軍은 政府軍을 擊破하고 大砲二十門、機關銃十六基、小銃八百丁을 鹵獲하엿다고한다 政府軍은 右戰鬪에서 六百名의戰死를내여 政府軍은 內亂勃發以來의 大敗를 하엿다고한다 세빌리아에잇는叛軍은 루진드鑛山의 人民戰線派鑛夫六十八名中六十七名을 捕虜로하야 近近全部銃殺에 處하겟다는 旨를發表하얏다 또叛軍의 一隊는 말라가市로 向하야 砲擊하야 一兩日中에 이를奪取할것으로보인다

【이룬三十一日發同盟】이룬을中心으로한 政府叛軍의 戰鬪는 二十九日부터 膠着狀態에 陷하고 때때로 叛軍飛行機가 市上空을 飛翔하야 爆彈을投下하고잇는데 不過하다 右는 叛軍의 援軍이 아직到着치안키때문이라고 보인다 援軍到着과 함께叛軍은 海陸空의 三軍으로 이룬市를 衝擊할作戰인모양인데 政府軍도 叛軍의 作戰을 察知하고 이미 파다르베要塞에 幽閉한·叛軍捕虜三百을 드락으로引出하야 捕虜를 銃火下에 세우고저 가장危險한 場所에 配置하고 叛軍進擊에 備하고잇다 市民은 이룬市中으로부터 退出하야 佛領에 避難하엿기때문에 市中은捕虜와 政府軍外에 一人도 볼수업시慘憺한氣分이떠돌고잇다

關東大震災記念日 三陛下御默禱

【東京電話同盟】葉山御用邸에서 御避暑中이압신 天皇皇后兩陛下께압서와 大宮御所에 계압신 皇太后陛下께압서는 九月一日 關東大震災十三周年의 記念을 惶恐하압시게도 御追想하압시사 午前十一時五十分부터 暫時御默禱하압서 幾多의 生靈의 御冥福을 御念하압시엇다고 承聞된다





西班牙動亂畫報

政府軍과 叛軍間에 猛烈한 戰鬪가 展開되야 兩方에 二千餘名의 死傷者를 내인 中部西班牙의 古都토레도市大激戰의 二場面 (上)叛軍의空襲아래서 防戰하는 政府側義勇軍 (下)파시스트軍의猛射

武官總督就任으로 南方國策의 進路暗示!
臺灣島內의統治에서더나아가 對南中、南洋發展根據化

【東京電話同盟】臺灣總督과 總務長官更迭은 一日의 閣議에서 發令하고 新總督에는 小林躋造大將, 總務長官에는 元警保局長森岡二朗氏가 就任하기로되엇는데 臺灣總督에 一部反對를 눌르고 武官出身의 小林大將을 안친것은 南方國策의 進路를暗示하는것이라고 各方面에서 注目하고잇다 即 小林新總督은 將來의 臺灣統治方針은 現在의 臺灣島內의 統治로써 足하다고하지안코 積極的으로 對南中、南洋國策의 根據地가 되게하는데 잇서 자못 注目되고잇다 그리고 南方國策은 갓가지 經濟進出에 邁進할 臺灣拓殖會社의 設立을 두는것으로 近近의 經濟的發展을 助長하야 南方資源의開發 產業進展 國防等에 努力하기로되엇다

總務長官森岡氏決定

【東京電話同盟】臺灣總督府總務長官更迭은 一日 森岡二朗氏를 起用하기로 決定하고 如左히發令하기로되엇다

任臺灣總督府總務長官(一等) 敍從四位勳二等 森岡二朗
臺灣總督府總務長官 平塚廣義
依願免本官

또小林大將의 新總督起用은 暑中이므로 親任式을 行하지안코 二日 如左히 官記를 傳達할터이다

海軍大將 從三位勳一等功五級 小林躋造
任臺灣總督
臺灣總督 中川健藏
依願免本官

教會等燒却數 百六十二에到達

【바리칸三十一日發同盟】羅馬教皇廳發表에 依하면 內亂勃發以來 西班牙全國을 通하야 叛軍에게 燒却된 教會、僧院、禮拜堂의 總數는 百六十二에 及하엿다

前駐日西公使 叛軍政府密書苦待

【東京電話同盟】「叛成免官은覺悟한것 人民黨의 危急함에 빗나는 特命全權公使의 職도 弊履에 不過하다」고 熱砂가 춤추는 南歐、故國西班牙의 同志와함께 칼을잡고저 굿게 決意한 西班牙公使비고우氏는 一日橫濱出帆의 아·크리브란드號、十日解纜의 淺間丸等에 不確定船室豫約을 하면서 反軍政府의 指令書를 기다리고잇슥 在任西個年 정든 東京과 離別하는 熱血志士는 一面 情에는 弱한 紳士이다 西班牙公使館에 일하는日本人三十名의 月給은 이미 故國으로부터 送金이 斷絕되엇슴도不拘하고 포케트머니에서 거의 支拂하엿다 公使는말하엿다 一日에는 가지안는다 또 어느날 갈는지 말할수업지 一個의 西班牙人에 不過한 나는 아모할말도 업습니다

루마니아 內閣의 改造結果
小協商뿔라 崩壞?
親佛蘇外交의 티氏閣外逐出 타氏親獨政治實施乎

【부카레스트卅一日發同盟】루마니아首相타타레스코氏는 親佛蘇外交의 擔當者로 알려잇는티튜레스코氏를 閣外로 放逐하야 內閣改造를 斷行하엿다 三十一日 罷免된 티튜레스코氏에게 在任中의 功勞를 謝하는同時에 今回의內閣改造는 自由黨內閣의 出現을要望하는 國內의政治情勢에 基하는것으로 貴下가 入閣할수업는것은 貴下가 自由黨員이아니라는 理由에基因하는것으로 他意가업다는旨를 闡明하엿다 그리고 各方面의 見解를 綜合하면 今回의內閣改造는 루마니아國王카롤陛下의 獨裁政治를 徹底케하려는 타타레스코首相의 意向에 基하는것으로 最近 漸次右傾한 타타레스코首相이 自由主義的親佛蘇의 티튜레스코氏를 下野시김으로써 親獨的政治를 實施할 意圖에서 나온 것이라고 觀測된다 타타레스코首相의 措置에 憤慨한 左翼黨首 라크리류레스코氏及 마도게알氏의 兩名은 博士 及 마도게알氏를 中心으로 倒閣及 反右翼運動을 이르키기로決定하고 即時 카프마르탄에 急行하엿다 何如튼 今回의 루마니아內閣의 改組는 從來 佛國의 衛星的 役割을 演出하여오든 小協商諸國關係은 루마니아의 一角에서 崩壞하게되여 佛國의 苦惱는 增大하리라고 觀測된다

借款問題를中心 佛波兩首腦會議
크레디트設定하는代償으로 波에政治的保障要求

【巴里三十一日發同盟】波蘭陸軍教育總監스미그리將軍은 三十日巴里에 到着하야 目下 가무란參謀長 곳트航空相同途下에 란스航空試驗場 샤파뉴베르단戰場을 視察中인데 週末에는 巴里에 歸還하야 불룸首相以下 佛國政府首腦部와 八、九兩日에亘하야 重要會談을 遂할 豫定이다 그리고 右會談에잇서서는 波蘭의 對佛借款問題가 中心이되리라고 觀測한다 스미그리將軍은 一九三四年一月 波蘭이 獨逸과 不可侵條約을 締結한以來 佛國이 波蘭에對한 財政的援助를 中止하엿기때문에 波蘭의國防力은 弱하게된 事實을 指摘하야 佛國의 對波크레디트의復活을 要請하고 其條件으로 크레디트의八割은 波蘭軍의 機械化에 使用할 材料를 佛國에注文하고 殘餘의二割을 波蘭의軍需工業發展을爲하야 使用하기를 提議할터이라한다 이에對하야 佛國은 크레디트設定을 與하는代償으로 波蘭으로부터 何等政治的保障을 어드려고하는데 波蘭은 仇敵關係에잇는 蘇聯과相々援助條約을 締結하여잇기때문에 佛、波의交涉은 相當한曲折을 免치못하리라고 觀測된다 그러나最近 獨逸은 波蘭의 回廊鐵道의 通過料로 負債가되여잇는 六億磅克을 軍需品으로 支拂하기를 提議한 事實이잇는바 스미그리將軍은 이事實을 끄집어내여 佛國과의 交涉을 有利하게 展開시키려할것으로 交涉의推移는 자못注目된다

蘇聯政府態度에 諸威政府憤慨
트氏放逐要求가高壓的이라고 自主的인行動을決意

【오슬로三十一日發同盟】蘇聯政府는 二十九日 諸威政府에 對하야 反幹部派의巨頭 트로츠키氏의 國外放逐을 嚴重要求하엿는데 諸威政府는 蘇聯政府의高壓的態度에 憤慨하야 니골즈볼드首相은三十一日如左히말하엿다 蘇聯政府는 二十九日 高壓的으로 트로츠키氏의 國外放逐을 要求해온것은 諒解키困難하다 나는 本問題에 關한限까지 諸威政府自身의 見解에基하야 行動할것이오 여기에 蘇聯政府의 容喙를 不許할決意이다

根本對策樹立次 三相會議開催

【東京電話同盟】成都事件의 實情調査를 完了한 松村書記官、槽谷重慶領事一行은 重慶에歸還하야 即時 外務省에 暴徒의背後에 介在하엿든 諸事情及 四川省政府當局 共後의 對策等에 關하야 具體的報告를 行하기로되엿다 따라 有田外相은 同報告의 到着을 기다려 今回 成都事件勃發에서 端的으로 表面化한 全中의 排日空氣助勢에 關한 根本的對策樹立을爲하야 二日又는 三日中 外務、陸海軍의 關係三相會議를 開催하기로 決定하엿다 有田外相은 其具體的解決方針이 確立되면 即時 川越駐中大使에게 訓電하야 南京政府의 責任을 追求케할터이다

政務總監을委員長에 水害善後策協議
臨時委員會設置、應急策講究 恒久對策도同時檢討

前後二回에 亘하야 全朝鮮特히 中部 南部地方을 掩襲한 水害는 朝鮮施政以來 未曾有의 大被害를 生하야 이應急對策에 關해서도 各道當局에서 銳意罹災民救護에 努力中인데 總督府에서는 應急的救濟保護對策으로 鐵道、農林、警務、內務、財務、殖產各局關係官을 網羅한 臨時水害救濟委員會를 設置하야 衣服、住居、食糧、醫藥等 應急的措置의 事務連絡을 緊密히하고 具體案을 樹立하야 이를 實施하야 萬全을 期하기로 決定하고 大野政務總監을 委員長으로 近近同委員會의 設立을 보게될터이다 死者二千名을 突破한 稀有의 風水害에 對하야 總督府에서는 別項과가티 臨時水害救濟委員會를 設置하야 應急措置를 講究하게되엇는데 每年恒例的으로 襲來하는 水害恒久對策에 關해서도 此際에 徹底的으로 檢討를 加할 必要가잇다고 臨時水害救濟委員會와 併行하야 各局關係官會議를 設置하야 被害地에 派遣하야 恒久對策을 樹立하기로 各局의 緊密한 連絡을 取하야 研究를 進行하기로되엿다

內務省全廳員 朝鮮風水害義捐

【東京電話同盟】今回朝鮮을 襲한 風水害는 想像以上으로 甚大하야 拓務省及 朝鮮總督府에서는 詳細한 被害實情이 判明되기를 기다려 朝鮮總督府 特別會計 第二豫備金으로부터 相當한 金額을 支出하야 罹災民救濟事業 被害地復舊方針을 決定하엿다 그리고 現地에서는 各道官衙 各機關總動員下에 罹災者救濟에 當하여잇는데 內務省도 義捐金으로 全職員은 俸給의百分之一을 醵出하기로 되엿다

"國民黨部解散과 排日行動禁止要求"
成都事件의解決方針에關한 海軍當局側의意向

【東京電話同盟】海軍에서는 成都事件에 對하야 南京政府의態度는 單純히 表面을 糊塗하기爲하야 여러가지로 對日懇宜傳을 行하는等 南京政府는 誠意를 表示치안코 遷延하는 形勢임에 鑑하야 一日 及川第三艦隊司令長官에 對하야 南下豫定인 第三艦隊를 現在대로 長江警備의艦形을 取하야 待機하도록 急遽訓電을 發하엿다 따라 第三艦隊는 上海를 中心으로 待機하야 南京政府의 誠意如何를 嚴重視하기로 되엿다 海軍에서는 今回事件을 極度로 重大視하고 萬若 南京政府가 局地的解決에 依하야 事件을 糊塗함과 如한 것을 絕對的으로 排擊하고 事件의 根源인 排抗日運動을 根絕치안는限 事件의 解決을 講究하지안흐면 안되리라하야 一兩日中에 열릴 外務、陸、海 三相首腦部會議에 軍側의 見解를 開陳하야 外務當局을 鞭撻하는一方 具體的方策에 關하야 協議를 거듭하기로 되엿다 그리고 事件解決에關한 海軍側의 意向은 大體로 左와 如하다

一、南京政府의 말과가튼 局地的解決은 絕對不可함으로 日中國交의 全面的解決로할것
一、今回不祥事件發生의 根本原因인 抗日思想의 根絕及 右運動의 徹底的 取締를 斷行하도록 要求할것
一、國民黨部의 即時解散 排日抗日集會結社의嚴禁、惡質對日逆宣傳放送의取締 敎科書에잇는 排抗日教材의 即時削除等을 要求할것
一、日中關係의 全面的調整에關한 日本要求를 是認케할것

辭令

任遞信書記 富田正光
任遞信副事務官 咸興郵便局長을命함 同 井上三之介
任遞信副事務官 釜山遞信分掌局保險監督課長을命함 同 一丸尙
任遞信副事務官 群山郵便局長을命함
遞信書記 北尾常次郎
任遞信副事務官 平壤遞信分掌局保險監督課長을命함
遞信技師 仁川海事出張所長 加藤寬平
遞信局海員養成所長을命함
同 元山海事出張所長 石黑愼吾
仁川海事出張所長을命함
遞信技手 淸津海事出張所長 關谷正
元山海事出張所長을命함
遞信技手 海事課勤務 山內政行
淸津海事出張所長을命함
遞信技師 遞信局海員養成所長 井上信吾
依願免本官

人事·集會

▲金光洙氏(本社營業局長)府內光化門通二二一에定住、電話光化門一九○七番開通

夕刊後市況 一日

◆東京短期◆

	後引	高値	低値
東新	三七四〇	三七七〇	三六五〇
日產	八三〇	八三四〇	八一六〇

◆大阪短期◆

	後引	高値	低値
日鐵	一三三〇	一三三五〇	一三三一〇
帝人新	一七六〇	一七六三〇	一七四八〇

◆大阪短期氣配◆

大新	一大九〇〇	(一〇高)
鐘新	一六六九〇〇	(不變)
日產	八二三〇〇	(一〇低)
東新	一二七二〇	(四〇高)

◆橫濱生糸後引◆
當限七〇六〇〇 先限六九八〇〇

◆福井人絹後引◆
當限 六三〇〇 先限 六〇三〇

木工機械一式 製作直賣 大阪市西區幸町通五丁目 山本商店 電話堀川二四九九番·四五九二番
製材機械
印刷機·斷截機
製作中古機·中古活字販賣 大阪市浪速區稻荷町一丁目九九 電話櫻川五三三七番 西村活美
蓄音器製作 ドーコレ 大阪市東區清水谷 林蓄器
食料玩具 小物玩具問屋 筑紫屋商店 大阪市東區清水谷西之町
印刷物經濟化! 太陽卓上石版印刷器 事務에商戰에教育에社交에理想的인本器를推獎
이것이다! 마음대로宣傳印刷物이印刷된다 特價五圓부터 特約店急募 太陽商會 大阪市日本橋四丁目
日收十圓 饅頭燒機械 最新リレー式 型錄二錢要ス 北原製作所 大阪市西成區今船町
カタログ進呈 古村製作所 大阪市南區松屋町
圍碁 通信教授 山口賛石
大王の 繩屋機 寶屋農具製作所 大阪市南區堀江通三
塗裝機 手押式 ラッカー·ナメル吹付器 牧志商店 大阪市港區八雲町二
二重廻轉 饅頭燒機各種 新案特許 神崎商會

災地에 第二次의 魔雨!

柴糧조차 缺乏한데 寒雨까지 덥친 災地

本社救護班千餘災民에 配食

【宜寧에서本社特派員嚴尙燮發電】 하늘은 웨이다지도 무심한가 사람을삼키고 집을떠나려보내며 전답을 메우고도 아직속이 풀리지안헛는지 일일아침부터 또다시 나리기시작한 비는 정간교를 중심으로 부근일대 삼천리재민의 눈물과가티 조곰도 멋지안헛다 겨우 끄집어낸 가장즙물을 적시어가며 당국에서 배급하는 주먹밥도 삼십일일을 마지막으로 중단되니 쌀과나무의결핍으로몰론 헐버슨몸으로 긔한에 떨고잇는것은 참으로 목불인견의 참상이다 이에 우리구호반은 비를무릅쓰고 우선 일시적이나마 급한대로가장긴급한 리재민 일천이백명에게 쌀을 논아주고 위문을 하엿는데 이 쌀을 밧고 감격의눈물을 흘리고 잇는 광경은더한층 비장한것이엇다

金泉의 死傷失踪 五百二十五名

食糧絕乏으로避難民大困境

本社救護班冒雨活動

【金泉支局特電】 이번 수해로 경상북도에서 가장 심한 김천군(金泉郡)내의 피해상황은 다음과갓다

▲龜城面 死傷者二四九名 流失家屋二二一戶

▲知禮面 死傷者六〇名 流失家屋六九戶

▲助馬面 死者二五名 流失家屋一一七戶

그중 조마면에는 소작농이 전부로 경작지의 팔할이 일시에 황무지가 되여 당면의 긔한에 조차 떨고 잇다 김천읍내도 황금정(黃金町)일대가 침수하야 사상자 삼명, 류실가옥십호, 전괴가옥일백이십이호이다 비는도삼십일일부터 내렷다 들엇다하야 언제나 왓전히 날이 개일지모르겟다 삼십일일 까지의 김천군의 피해집계는 사자가 일백칠십구명, 부상자 삼백이십일명 행방불명이 이십오명, 류실가옥 오백구십칠호, 전괴가옥 삼십칠호 피난민이 이천구백삼십오명 피해액이 사백오십칠만륙천구백삼원이고 전답류실이 사천이백칠십사단이다 피난민은 식량이 끈허저서 떠내려오는 소를 잡아 먹고잇는 형편으로 본사구호반은 쌀과 약을 화물자동차에 실고 비를 무릅쓰고 출동하야 구조에 노력중이다

災地金海에 또降雨

殺風景인 避難騷動

極度로疲勞한二千五百災民

山으로堤防으로集結

【金海支局特電】 오늘아침부터또다시 나리기시작하는비는 피난민의 눈물이한울로부터 나리는것이냐 군내삼천오백여명의 피난민들은 산우으로 제방으로찬비를마저가며 대호집을이루우고잇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찾고 어버이는 아들딸의 어름을부르는등 가련한처경을보이고잇다 이우에 환자의신음하는소리 엇더케보도하여야 조흘지 모를상태에빠저잇다

船夫二名의 屍體를發見

舊馬山海岸서

【馬山支局特電】 이십칠일의 래풍으로 침몰된 근환(堇丸)의선부삼명의 시체는 삼십일일저녁에 구마산해안에 표착되엇음을발견하얏다

順天水害集計

【順天支局電話】 하로달 현재로 판명된 순천(順天)지방의 수해상황은 다음과갓다

▲豚鷄死四十四頭 ▲牛同二頭 ▲鷄同百八十一頭‖此計三百三十八圓 ▲家屋流失六戶 ▲同全壞七十九戶 ▲同半壞三百三十六戶 ▲同床上浸水六百七十三戶 ▲同床下浸水百九十八戶‖此損害計二萬四千五百八十八圓 ▲其他建物流失九棟 ▲同全壞三十三棟 ▲同半壞四十二棟 ▲同床上浸水六百九十三棟 ▲同床下浸水百九十九棟‖此損害計一萬五千六十五圓 ▲船舶流失一隻 ▲同全壞三十三隻 ▲同半壞十七隻‖此損害計五千二百圓 ▲道路流失七百六米 ▲同埋沒二百五十米 ▲同破損九千六百三十五米 ▲畓浸水二千九百四十四反 ▲同流失六百二十斗落 ▲田流失八、九段 ▲木棉損害八萬一千三百六十八圓 ▲大豆損害 四萬七千二百七十九圓 ▲果物損害八千五百圓 以上合計 五十九萬七千七百圓

江原水害集計

【春川支局電話】 강원도(江原道)내의 삼십일일오후한시까지 판명된 수해상황은 다음과갓다

▲襄陽郡 死者 一二名 負傷者一名 家屋流失六一戶 家屋全壞 五二戶 半壞 一四〇戶 浸水三一五戶

▲春川郡 家屋流失二九戶 全壞七戶 半壞三戶 浸水一九五戶

▲楊口郡 家屋流失 五一戶 全壞七戶 半壞二七戶 浸水四四戶

▲華川郡 死者 一四名 行方不明 一二名 家屋流失 二四戶 全壞八戶 半壞四五戶 浸水一六六戶

▲通川郡 死者 一五名 負傷者 一九名 行方不明三名 家屋流失九八戶 全壞三八戶 半壞八五戶 浸水三〇九三戶

▲淮陽郡 死者 一一八名 負傷者九四名 行方不明四二名 家屋流失二二七戶 全壞一一六戶 半壞二〇〇戶 浸水一七九〇戶

▲高城郡 死者 一八九名 負傷者八九名 行方不明 四〇四名 家屋流失五六一戶 全壞三二九戶 半壞二二六戶 浸水一四〇四戶

▲江陵郡 死者 一一六名 負傷者 六七名 行方不明 二〇三名 家屋流失 四四七戶 全壞 五七一戶 浸水 一六二八戶

▲三陟郡 死者 一九名 家屋流失 九三戶 家屋浸水 一三二四戶

▲平昌郡 死者 一三名 負傷者 一名 家屋流失 二七戶 全壞 一九戶 半壞 二八戶 浸水三三六戶

▲旌善郡 死者 三五名 家屋流失 二〇一戶 全壞 三四戶 半壞 九四戶 浸水 三一七戶

▲洪川郡 死者 一名 家屋流失 一戶 全壞 三戶 半壞 四戶 浸水 五戶

▲寧越郡 死者 一名 流失家屋 一三三戶 全壞 三〇戶 半壞 四八戶 浸水 八七戶

▲原州郡 死者一名 家屋全壞 三戶 半壞二〇戶

農作被害莫大

泗川에또降雨

【泗川支局特電】 경남사천군내의 농작물피해에 대한것을보면 수전에대한피해도 막대하고 전작은 면작(棉作)을 중심으로 그피해가역시 막대하다 아직피해액으로서는 계산키어려우나 그액수는 상상이상으로 막대할모양임은 물론인데 가옥, 전답을 일흔피난민들은 장차어케하여 다시 생도를구케될런지 전연 막연하다 당장은 집이라고비를 피할곳도없고, 입을 옷도 업고, 먹을것도업는 리재민들을 위하야 일반은 면소를중심으로 청년단과 부인들이 총동원하야 구제금품모집에 분망한중이다 이날저녁지방에는 월수의비가 다시나리어 인심을 소란케하고잇다

各町會의 救濟品 上으로부터 唐珠町町會、大島町町會、都染町町會、天道敎內誠團

食糧絕乏의 襄陽

飢饉慘境의 災民들

高城以南은電信線全滅狀態

元山遞信分掌局入電의江原道風水害情報

【元山】 이번강원도일대(江原道一帶)를 엄습한 폭풍우의피해는 예상이외로 범위가 큰모양이나 전신전화등 통신긔관의 불통으로 그참상을 잘들으고잇섯는데 지난삼십일일아침에 원산체신분장국(遞信分掌局)에들어온 보고에의하면 다음과가티 판명되엿다

양양(襄陽) 우편소장으로부터 삼십일일오전한시에 원산체신분장국에보낸보고에 의하면 양양읍은 지난이십칠일오후 한시부터 시작한 폭풍우로 이십칠일 오전네시에는 남대천(南大川) 제방이 결과되여 약삼분간이라는 순간에 전호수오백칠십오호중에 사백여호가 류실되고 남어지 가옥은 모다고지대에잇는 관청등뿐인데 그것도모다 상상(床上)사척의 침수하엿다 상으로 죽은사람은 일백오십이명이다

그리고 이곳에는 쌀이한가마니도업다。 더욱이수만흔리재민은발충에 알코롱이로 피하야가때문에 지금은아사선상에서 문자그대로의 아비규환의 참상을일우고잇다

同別報 삼십일일오전네시사 실분 립신환(立神丸)으로부터조선우선회사 원산지점에한무선전신에 의하면 양양은 관청을내노코는 모다 전멸되며 류실하얏는데 사자(死者)판명이 오백삼십칠명이고 부근부락도 류실되여 사자도다수인모양인데 교통복구함에는 적어도 일개월은 걸릴것이며 통신은 이상얼내로 복구될것갓다

◇

고성읍(高城邑)은 전읍이 모다 넘자이상이 침수되엿는데 가옥류실이 륙십호 사자가사십명이되다 그중우편소는 상상(床上)넘자나 침수되여 통신을 못하고 잇다

그리고 이고성부근에잇는 일포(三日浦)역부근 부락은 전부류실되엿다고 전한다

◇

이번강원도일대를 횡쓸어업퍼노흔 폭풍우로 동해 북부선은 귀차가불통인데 이와동시에 전신전화도 불통이다 더욱이 고성(高城)이남은 전신선의 단절로 일체통신을 못하는 중이며 원산과고성간은 전신선은겨우곳첫스나 아직 우편소관계로불통중이다。 이에 원산체신분장국에서는 게원을 동원시켜 방금복구에 분망중이다

◇

아직정확한보고는 들어와잇스나 원산체신분장국에 들어온정보에의하면 간성(杆城)과 강릉(江陵)간의 도로는 칠수 류실이만코 더욱이 교량은 대부분 류실되여 교통이두절되여잇다고 한다

◇

이번 풍수해가심하얏든 강원도 양양(襄陽)고성(高城) 강릉(江陵)등지에는 식량이 결핍되여 수만은 리재민은 먹을것이업서서 걱정중이라는데 그중에서도 양양은 시중에 쌀한가마니도업는상태다 이로말미암아리재민들은 아사지경이라는데 이에 원산체신분장국에서는 백미이십포대를 양양에 두포대로고성으로 각긔부식물(副食物)과함께 보내여 구제중이다

古郡山의 첫通信

漁夫卅九名失踪

出漁中颱風으로漁船十隻과함께

損害二十萬圓程度

【全州支局電話】 태풍으로 연하야 교통이 두절되여 한마디소식을 드를수업든 고군산(古群山)으로 부터 구월일일 오후세시삼십분 당지 도청에 보도된 보고에의하면 장자도(壯子島)어민 윤기술(尹基述)외 스물두명 어부는 어선두척으로 안마도(鞍馬島)까지 고기재비를 나갓다가 행방불명이 되엿고 그곳간이학교(簡易學校)기숙사와 교실이전부 문허지게 비안도(飛雁島)에서도 최봉산(崔奉山)외열엿명 어부가 어선여덟척을 남호아 타고 고기재비를 나갓다가 역시행방불명이 되엿다 그리고 군산(群山)서는 어선의 전부 부서진것이 열여덟척이요 수산과 어선의 손해가 이십만원이라고 한다

道路、橋梁、堤防의 決潰는不知其數

慘憺한郡北面水災

本社嚴特派員의決死的踏査

【郡北에서 嚴特派員發電】 의령(宜寧)은 아즉교통이 두절되여 전혀 소식을알수업서 긔자는군북(郡北)지국장의 응원을어더결사적모험을하야 현지로 들어가서 실지조사를하엿는데 그피해가크고 참담한데 놀래지안흘수업섯다 수자로 조사해 보건대 류실일명이 죽고 류실가옥이 팔백구십칠호 전괴가옥 일천삼백칠십이호 칠수가옥 삼천구백사십륙호에 달하고 전답 피해가 삼천오백 이십이정보이며 도로와 제방교량의 결과는 부지기수며 피해액이 약팔십팔만원에 달하고잇다 특히의령간의 다리부근은 한촌락 일백십이호중에서 겨우 이호를 남긴 미증유의참상을 현출하엿다 여기서 군북면 월촌(月村)에 이르는 약오백정보는 전혀 매몰되고 오직 보이는것은 버드나무의 가지의뿐으로 이는 참으로 상전이변하야 벽해가 되엿다는말의 실감을 엇게하고잇다

鐵道被害百萬圓

이번수해로인한 철도국가선에서 바든피해총액은 실로백만원을 넘을모양인데 지난달하순에 바든 수해의복구공사비를 합하면 실로 백륙십만에나 달할모양이다

그리고 이중에서 백삼십만원은 총독부에 요구하게될것으로 보인다

七千名罹災民의 救濟方途가全無

去益判明되는居昌風水害

【居昌支局特電】 이번호우로 한울안 교통이두절되고 전신전화까지 끈허진 거창군내는 이제겨우 그교통통신의일부가 열리여서 피해가 점점판명되여간다 각면에서 군으로 보고하여온것을보면 사망자일백삼십륙명 류실가옥 칠백오십호 전답침수가 일천칠백정보 도로제방의 피해를빼고 약삼백만원에달한다 리재민은 칠천여명인데 구제할길이전혀업다 군민들은 당국의 근본적구조의 손을 갈망하고잇다

京仁街頭에交通慘禍!

京電뻐쓰가顚覆 十六名이重輕傷

白晝·鷺梁津飛行場아페서

【永登浦】 일일오후 사시오십분쯤 경전(京電)뻐쓰 경 제삼칠륙사호에 운전수 리창무(李昶茂)(二三)차장 李相儀(一九)가 승객십칠명을태워가지고 영등포를 출발하야 한강을향하고 질주하든 비행장입구와 범더온천(汎德溫泉)입구 중간을 통과할지음에 아페서 영등포 대곡세탁소(大谷洗濯所)외교원 송하동(宋河童)(二〇)이가 자전거를타고 뻐쓰정면을 향하야 닥치오므로 뻐쓰는 이것을 피하기위하야 오른편으로 급작이 카ー부를 돌렷섯는데 공교롭게 아페서잇는 전주와 충돌되는순간 다시급한카ー부를 돌리여 피하려고하엿스나 질주하든속력에 전복되여 그만 운전수는 경상을당하고 차장과 전기송하동은 두부에 각각 중상을닙어 약일개월치료를 요하다하며 승객 십삼인도 중경상을 당하야 모다영등포 제일병원(第一病院)과 소전병원(小田病院)에 나누워 응급치료를 마친후 그중중상자는 경성적십자병원에 입원치료중이며 금번 차체기타의 손해 약 사백원가량이고 부상된 승객의 주소씨명은 아래와 갓다

▲重輕傷者氏名 加見久太郎(二七)永登浦鐘紡會社員 申龍洙(三二)京城玉仁町四六番地 全甫鐵(一九) 京城鷺梁津町二二七番地 中村一郞(三〇)京城靑葉町一丁目一二七番地 淸水留男(三六)未詳 右田重郞(三六)未詳 林高寶(三七)京城府黑石町五番地의一〇號 金昌奉(三五) 京城府永登浦出張所戶籍係 秋氏(三五)京城府諫洞五三番地 千鍾植(三〇)京城府永登浦出張所 大野弘秋(三〇)京城府芳山町一二三番地 鄭來學(三七)京城府敦義町一六〇番地 金容善(二九)京城府若草町一二七番地

(사진은 전복된뻐쓰)

强盜發生後三日

犯人行方은依然杳然

一日曉各署一齊檢索

긔보=지난이십구일 새벽에 서내 봉래정(蓬萊町)사정목에잇는 봉래상점에 침입하야 취침중에 잇든 주인의형 채인서(蔡仁瑞)를 식도로란자하야 즉사케한후 현금사십원을 강탈하여 가지고 도주한사건에 관하야 소관서대문서는물론 경긔도경찰부 야촌(野村)형사과장이 동서에 출장하야 련일련야 불면불휴의 활동을 게속하고잇다 최초의 가장유력한 용의자로 취조를게속하든 엽칠우유상 최우현(崔禹鉉)하고달여 방구인 금일일까지아모유력한 단서조차 잡지못하엿다고한다

鍾路署七十名 龍山署六十名

일일새벽세시부터 시내종로서(鍾路署)와 룡산서(龍山署)에서는 지난이십구일 시내봉래정(蓬萊町)사정목에나타난 살인강도범인을잡으라고 각긔관내를 일제검색하야 종로서에서는칠십명을 룡산서에서는륙십명을검거하엿다

歡呼如雷의 白頭山講演·映畫

讀者公開第二夜는 安國町中心으로招待

본사주최백두산탐험(白頭山探險)보고강연과영화대회 독자공개제이일은 예정과가티 일일오후일곱시반부터 본사대강당에서 열리엇다

시간전부터 모혀기시작한 관중이 정각에는 립추의 여지도 업스리만치 빽빽이 드러차서임이 일천오백을 훨신초과하엿다 이익고 본사판매부장 방건두(方建斗)씨 사회로 본사주필 서춘(徐椿)씨의 이번탐험에대한 여러가지 고심담이끗나자 대망의백두산탐험실사가 상영되엿스니 이는실로 정숙그것이엿스니 이는 우리독자여러분이얼마나 백두산에대하야 비록영화일망정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고잇다는것을 말하는것이라고하겟다 박수갈채리에 이사진의 영사를끗마치고 뒤이어서「올·토ー키」「공포의 룸펜」이 속영되엿는데 이여시 대갈채를 바덧스며 오후 열시십분쯤에 우뢰가튼 박수소리로 제이일의 막은 다처젓다 그리고 제삼일인 구월이일에 초대할구역은 다음과가트며 이날추가영화는 『怪巡洋艦엠덴』으로 방수리라고한다

▲苑西町 齋洞町 嘉會町 花洞町 安國町 三淸町 八判町 昭格町 司諫町 松峴町 寬勳町 一部

遝至하는 義捐金品

同胞愛의 結晶!

市內各町會에서義捐

【金品을募集、本社에寄托】

삼남(三南)강원도(江原道)지방의 미증유(未曾有)의 수재피해참경이 한번 본보에 보도되자 따뜻한 동포의 선물이 뒤를이여 본사(本社)로 답지하고 잇다는것은 이미 수차、지상에보도한바이어니와 그후도 여전히아름다운 동포애(同胞愛)의 꼿출피우고잇다 삼십일일 접수한것은 다음과가터

▲唐珠町會 現金 三八、六〇錢 衣類 七〇七點 白米 一升五合 고무靴 八足

▲大島町 現金 五、八〇錢 衣類 二五六點

▲都染町 衣類 二九〇點

▲天道敎內誠團 白米 二升 寒神丸 二匣 現金 一四、三五錢 衣類 一一三點

본사에서는 전국 의연금품(義捐金品)중·물품만은 곳 본사각지국(本社各支局)을 경유하야 각지의 리재민에게 분배하며 또 것운형제의 의사를전달하엿다

鄕土愛의 發露

在神戶朝鮮人 各團體서蹶起

긔한에 떨고잇는 리재동포를 구하자! 현해탄(玄海灘)을 건너 멀리 신호(神戶)에 가잇는 이만의 동포들은 신호시용학구팔운통(八雲通)오정목륙십일번지에 수해구제본부를 두고 신호에잇는 이만의 동포들은 모다 『사흘동안 술과담배를 끈허 수해동포를 구하자!』는 선전 『삐라』오만매를 전시에 배부하야、 전국적으로 의연금모집운동을 시작하엿스며 신호대화친목회(神戶大和親睦會)와 재신호조선인학우회(在神戶朝鮮人學友會)에서도 일제히 이운동에 참가하야 맹활동을 시작하엿다。

海印寺京城布敎所에서六十圓

시내 봉익정(鳳翼町)이번지 대본산해인사 경성포교소(大本山海印寺京城布敎所)에서는 일일오후 삼남지방리재민에게 분배하여달라고 동소교도들의 거출한 현금륙십원삼십전을 본사에 의탁하여왓다

市內各料理店

뽀이들이醵金

三南水災義捐金으로

일일 시내 료리집뽀이들이 동명관(東明館) 박태영(朴泰榮) 국일관(國一館) 리유의(李允儀) 송죽원(松竹園) 김명식(金明植) 제군이 발긔하야 전긔세곳 료리집은물론 명월관(明月館) 춘경원(春景園) 천향원(天香園) 별장(別莊) 조선관(朝鮮館) 식도원(食道園) 태서관(太西館)등 시내각료리집뽀이들이 거출하야 합계 팔십구원오십전을 이번삼남수해동포구제에 보태여 달라고 본사로가지고와다

大昌精米所에서도百圓

▲시내죽첨정(竹添町)이정목에 잇는 대창정미소(大昌精米所)에서는 금 일백원을 수해구제금으로 본사로위탁하여왓다

運動競技

仁川水上經過

【仁川】 지난 三十一日 午後一時부터 月尾島潮湯〃풀〃에서全仁川水上競技大會를 開催하엿든바 觀衆은 無慮千餘名을 超過하야 盛況을 이루엇는데 그 成績은 다음과갓다 한다

【三百米메도레ー】 1仁泳팀 四分一六秒五 金石永(背泳) 李順福(平泳) 洪福仁(自由) 2仁商

【四百米自由型】 1金石永(仁泳) 六分二三秒二 2海老原六(仁商) 分三三秒二 3李鮮雨(仁泳)

【百米背泳】 1金石永(仁泳) 一分三六秒九 2劉鳳在(仁商) 一分四〇秒三

【百米平泳】 1海老原(仁商) 2李順福(仁泳) 3韓光珠

【百米自由型】 1洪福仁(仁泳) 一分一一秒九 2金仁珠(仁商) 一分一三秒F

【二百米背泳】 1劉鳳在(仁商) 三分五四秒三

【二百米平泳】 1海老原(仁商)三分二〇秒八 2李順福(仁泳)三分二八秒八

【二百米自由型】 1洪福仁(仁泳) 二分五〇秒九 2李鮮雨(仁泳)

【二百米릴레ー】 1着 仁泳팀 二着 仁商팀

館靑會常務會

[illegible]

京城版

狂犬이 少年四名咬傷

【永登浦】 시내본동정일백구십구번지 조이복(趙仁福)의장남(?) (永登)(○)동정삼백삼십번지 김춘유(金春有)의장남 수봉(壽奉)(○) 등 시외고(申?)등 장남재현(在賢)(○)등 ○동정이백구십일번지 김정진(金○) 정수(正秀)(○)등 네소년은 모다다리와팔에 중상을입어 목하근처 금강의원(金剛醫院)에서 응급치료를받고 잇는동이며 경찰은 광견박살을 하기로되엿다고한다

二千餘名違反者에 半은說諭、半은處分

三十日로부터 一日午前까지二日半間

鍾路署管內交通違則檢査

서울이 커저가고 부민이 늘어감에따라 그교통망이 조밀하여저서 어곳저곳의네거리마다 전차 자동차 마차 자전거와통행인이 사방으로 빠르게 흩은느리게교차되여 불부경성만해도 종로네거리는 이미교통정리의 적신호긔가 서잇슨지 오래이지만 얼마전에 광화문통(光化門通) 네거리에도 새로히 정리긔가 섯스며 서대문네거리와 종로사정목 네거리에로 이를 세우고잇는터로 대경성의 교통선은 나날이 그혼선이 어지러워저간다 어런 형편에잇는만큼 일반 시민들도 공중교통에대한 상식과 그실행을 게을리해서는 안될것인데 사실은 그와 반대로 이를 전연 몰각하는 사람이 적지안타 지난 삼십일부터 금일까지 사흘동안에 시내 종로서 보안계에서는 이런 공중교통을 몰각하는 시민에게 강제훈련을 시키기위하야 다수경관이 출동하야 종래의 교도시키는 정도를 넘어서 그취체를 엄히한결과 삼십일아츰부터 일일오전중에위반자가 이천여명에 달하엿는데 비교적가벼운 일천명은 현장에서 설유해보내고 나머지 일천명에대하야는 고발을하야 처벌하기로되엿다

그위반은 자전거와 통행인이 차 자동차의순서인데 자전거를 타고 인도(人道)로가는사람 차도로를 것는사람 우측통행을하는사람 자동차가 통행방향으로정지해잇지안는것 또는경우에방치되여잇는 물건등으로 특히상당한지식계급에도 이위반자가 만허서 경찰에서는 일반교통안전을 위하야 모조리 과료(科料)처분에부첫다고한다

七千圓經費드려 興東學校를改築

來十月中에는竣工할豫定

故金周容氏遺財로

【永登浦】 시흥군 신동면장곡리(始興郡新東面○谷里)는 여종대(呂鍾大)리영섭(李英燮)의 제씨의노력으로 설립된 사년제의초등 교육긔관으로 시흥군신동면(始興郡新東面)과 광주군언주면(廣州郡彦州面)에 거주하는 만흔 자녀들을교양하여오든터인데 올축년장마때에미증유의대홍수로말미아마 교사가여지업시 침수되여 할수업시 유지곤난에 빠젓든것을 조선교육계에 만흔공헌을끼치고 올슥년홍수때에 동리리재민사십여호에대하야 전부가옥의 건축과생활보장을 하여주엇스며기타 조선사회에 업지못할자선가로서 보통학교 교과서에까지 올리게된 시내 아현정(阿峴町) 고김주용(故金周容)씨의 재산과 사업을 관리하고잇는 보린회(保隣會)에서 동교를 부들어 오다가 고김용선(故金○善)씨가 또한동교를 위하야 만흔 활동을 하엿섯는데 김열선씨가 불귀의객이된후로는 현재 보린회(保隣會)의 리사이자 고김주용씨의 상속자인 김교익(金敎翼)씨가 선친의 유지를 밧드러교장에 취임한후 유지 한대흠(韓大欽) 리영섭(李英燮)기타 제씨와 협력하야 가지고 금번불에 륙학년제로학년연장을 단행하는동시 칠천여원이란거대한 경비를던저 서일백팔십여평의 새로운양식교사를 신축하고저 목하공사를진행하는중이대 오는십월에는 준공되리라하며 따러서 보통학교 승격수속도 목하 진행중으로교사의신축이완성되는동시 승격인가가나는날에는 시흥(始興)광주(廣州)량군에 접근된 주민의자녀교육상 큰공헌이 잇스리라고하며 일반은 동교경영자인 김교익(金敎翼)씨와 설립자 리영섭(李永燮)유지 한대흠(韓大欽) 기타 제씨의 헌신적노력을 감사한다고한다

定員三名에 七名의立候補

永登浦府議選擧戰

【永登浦】 경성부회의원 증선에 따른 선거운동은 중부、동부、서부가모다 상당한 격전이 전개되는모양이나 특히영등포에잇서서는 지난이십일일 선거인명부 종람을 공개하고 이십이일부터 부청에서 립후보계출을접수케되자 단이틀동안에 정원삼명에대하야 일곱명의 립후보계출이잇슨후 각후보자들은 각각 최선의방법으로 운동원의 쟁탈전을이르키여 제각기 교제가넓고 ○망이놉흔 운동원을 엇기에 골몰쓰는모양이며 이어서 우중임에도 불구하고고두전(叩頭戰)을전개하야 전에보지못하든 맹렬한추격전을 이르키고 잇는데 먼저립후보계출을하엿든 정인환(鄭寅煥)씨는 본인이부재중에면명유지가 억지로 추천하엿든터임으로 못내 사퇴할모양이며 먼저부려출마를주저하든 최준영(崔俊永)씨가 이십팔일 정식으로 립후보계출을하엿슴으로 결국칠인의립후보인데 과연유권자들의재단이 엇더케될것인지 자못흥미잇는일이라고한다

長霖끄테勞働者殺到

【仁川】 오륙천명 로동자가 한집에오리씩하는 품파리나마 지리한 장마로 인하야 취업치못하고그날그날 생로에 거한울면치못하고 잇슨중 오래간만에보는해빗과 한가지 장마동안에창백하야진 안색으로 부두우에쇄도하는로동자의 수효는 이루세일수업는 형편인데 이와한가지 비참한사실은 그동중에는 부상자가속출하는것이라는데 지난삼십일 오전팔시반경 인천제이축항(築港) 공사장 채석장(採石場)근방에 공사중에 인천부외장의리(仁川府外長意里)삼백칠십륙번지 정한용(鄭漢用)(三五)인부는 노피 륙미돌되는지점에서 떠러지는 직경(直徑)사촌가량되는돌에 두부를상하야 즉석에서 혼도하야잇는것을 인천목리(牧○)병원에입원치료중이나 생명이위독한형편이라하며 동일인천축항에서는 인천부도산정(仁川府桃山町)이십팔번지 도동혁(都東赫)(三三)이다 제이창고의짐을 정박중의 금비라환(金比羅丸)에실는중에 동기선의기중기(起重機)에 얼골을부상하야 약이주일간치료의 부상을입엇다 그의에도 이상주일치료를 요하지안흘만한정도의 부상은비일비재한형편이다

"朝體"綜合競技 水上大會臨迫

參加申請은今日까지

朝鮮體育會主催의 第七回全朝鮮綜合競技大會水上競技는 來五、六兩日間 京城府營풀에서 開催한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이大會의申請期限도 今二日午後六時까지로 迫頭하엿는데 京鄕各地로부터 斯界의精鋭들이 續續申請하야 當日의盛況을 벌서부터 豫期하고잇다

留學生卓球軍 京城서二回戰

東京留學生卓球俱樂部一行은 其間全朝鮮各地로 轉戰中이든바이번에 高麗卓球聯盟의 招聘으로 今二日 午前十時三十五分 京城驛着 列車로 來征할터인데 京城에서는 二日午後七時부터 鍾路靑年會體育館에서 漢陽俱樂部及推榮俱樂部聯合軍과 對戰하기로 되엿는데 三日午後四時半에는 總督府講堂에서 全總督府軍과 對戰하기로되엿는바 留學生軍의"멤버"는 다음과갓다

▲監督金永煥(高岡高商)▲主將 尹廣彬(明大豫科)▲選手 金永煥(高岡高商) 金炳雲(巢鴨高商)朴在昌(法大豫科)羅鳳吉(法大豫科)

▲漢陽及推榮聯合軍▲監督 延眞善▲마네저 李珠煥▲主將金鉉玉▲選手 洪允基 韓弘淳 金麥入 崔 譯 李德煥

▲總督府軍▲監督 金昌鈞▲主將 曺明煥▲選手 朴在敏 尹同燮 李在雨 湯龍煥 李東憲

高障碍世界新記錄

【오슬로卄七日發同盟】 米國의흑인 피필든은 方今諸國에 轉戰中인데 지난二十七日當地에서 擧行한招待陸上競技會에잇서서 過般올림픽大會高障礙競技에 十四秒一의世界記錄으로서 優勝한「포레스트•타운스」選手는 十三秒七의世界新記錄을 作成하엿다

秋期럭비日程

西部럭비協會 朝鮮支部 朝鮮럭비協會는 今般名稱을 朝鮮럭비協會로 統一하기로되엿다 그리고今秋 리그戰은 九月二日부터의 善隣對龍中戰으로 開始되여 十一月二十九日까지 繼續하기로 「스케쥴」을 發表하엿는데 其中에는 善隣鐵道對朝鮮鐵道局과의 對抗戰을 行할터이다 朝鮮神宮競技는 十月一日부터 全日本中等豫選은 十一月八日부터 開催하기로되여씨ー즌부터 飛躍進展을 豫想케한다

▲九月中

善隣ー龍中 二日 四時 龍山
培材ー京中 四日 四時 京中
鐵道ー龍中 五日 三時 龍山
鐵道工ー普成 六日 一時 同
藥專ー京商俱 六日 二時 同
京中ー京商 六日 四時 同
養正ー龍中 九日 三時 同
培材ー鐵道 九日 五時 同
城大ー齒專 九日 五時 城大
城大ー京商 十一日 四時 龍山
遞信ー高工 十二日 五時 同
鐵道ー藥專 十二日 二時 同
培材ー醫專 十三日 三時 同
善隣鐵道對鮮鐵 十三日 二時 同
京中ー龍中 同日 四時 同
鐵道ー城大 十五日 四時 同
培材ー龍中 同日 五時 同
養正ー藥專 十六日 四時 同
鐵道ー京商 十七日 四時 同
大豫ー龍中 十八日 四時 同
京商ー善隣 十九日 四時 同
養正ー鐵道工 二十日 零時 同
京師ー龍中 同日 一時 同
京商俱ー京中 同日 三時 同
藥專ー京師 同日 四時 同
京城럭ー城大 同日 二時 城大
京商俱ー龍中 廿三日 一時 龍山
京城럭ー京商 同日 二時 同
培材ー京師 同日 四時 同
京中ー善隣 廿五日 四時 京中
城大ー商工 廿五日 四時 城大
高工ー京師 廿六日 二時 龍山
京城럭ー藥專 廿七日 一時 同
養正ー京商俱 同日 三時 同
鐵道工ー京商 同日 四時 同
龍中ー高工 廿八日 五時 同

▲十月中(朝鮮神宮競技)

中等一般第一豫選=一日 午後一時龍山
同第二豫選=三日午後一時龍山
一般準決及高等第一豫選四日零時龍山
高等第一豫選 五日午後四時半龍山
高專準決及一般決勝二日午後一時京城球場
中等準決勝 十四日零時京城球場
中等高等決勝 十七日午後二時京城球場

京城럭ー大豫 十八日 二時 龍山
鐵道工ー齒專 同日 三時 同
城大ー高商 廿日 四時 城大
京商ー道商 同日 四時 龍山
普專ー京師 廿二日 四時 同
齒專ー法專 廿四日 一時 同
醫專ー藥專 同日 三時 同
高工ー大豫 同日 四時 同
京城럭ー道商 廿五日 一時 同
京商俱ー城大 同日 二時 同
高商ー京師 同日 四時 同
道商ー京師 廿八日 四時 同
高工ー法專 卅一日 二時 同
普專ー醫專 同日 四時 同

▲十一月中

京城럭ー京商 一日 一時 龍山
齒專ー高商 同日 三時 同
鐵道ー高農 同日 四時 同
培材ー城大 二日 五時 城大
龍中ー城大 五日 三時 同
高工ー齒專 七日 一時 龍山
法專ー高商 同日 三時 同
藥專ー高農 同日 四時 同
▲全日本中等朝鮮第一豫選八日午後零時龍山球場
普專ー城大 十日 三時 城大
大豫ー高商 十一日 四時 龍山
法專ー大豫 十四日 二時 同
高農ー醫專 同日 四時 同
高商俱ー高工 十五日 零時 同
普專ー京城럭 同日 一時 同
▲全日本中等第二豫選同日二時同
普專ー藥專 十八日 四時 同
大豫ー齒專 十九日 四時 同
▲全日本中等準決廿一日二時京城
總府ー城大 同日 二時 總府
高工ー高商 同日 三時 龍山
鐵道工ー京商俱 廿二日 三時 同
▲全日本中等決勝廿三日二時京城
普專ー高農 同日 三時 同
▲全日本高專朝鮮決勝廿九日二時京城

京城 (時間은 全部午後)

運動界集會•人事

▲中央基靑主催의 아마튜어拳鬪大會委員會는 九月二日午後八時에同會館에서開催

今日의運動

▲卓球=東京留學生對漢陽聯合軍對抗卓球戰 午後七時鍾路靑年會卓球場

風水害畵報=盈德五十川江口의慘景(右上) 水國化한寧海一帶(右下) 線路우에洛東避難民(左上) 浸水된梁山浦市街(左下)

陰萎·勃起不良·不感症
中井醫學博士創製·五大博士推奬
最新發明局○塗布藥
セーブレピン (세부레핀)
●本劑는…局所에塗布하야…性호르몬의分泌를促進하고 勃起力을增大하야 快感을多大케하고 早漏를防止…
適應症 陰萎·勃起不良 性感增進·生殖器短小 不感症·分泌減少症
(男女共用) 一回一瓦 (價格) 二瓦入 五瓦入 百瓦入
發賣元 東京市靑山 天醫堂
京城本町 …大和町 …森 … 日本實業會社 …藥房

이은자리업는軍手의
製造家募集
希望하시는분은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 八十四番地 常盤商會支店에照會 또는來談
ツギメナシ軍手 カガリナシ
東京市神田區五軒町九の一 ツキメナシ軍手發賣元 常盤商會 本店 電話下谷三三七一番

말업는 손님

어떤 집에 한 손님이 왓는데 누가 오는것도 보지못하고 나아가는것도 보지 못하엿스나 다녀간 후에 결과는 식구 한사람을 다려간 놀날만하고 슯퍼할 일이 생긴것이다 이 손님이 오면 사람이 원하던지 안하던지 일을 마치엿던지 아직 마치지 못햇던지 예비하엿던지 아니하엿던지 관계할것 업시 사람을 다려가는것이다 다시 말하면 드러올 때는 혼자 드러왓지만 나아갈 때는 식구 하나와 함께 나아간다 이 손님은 언제나 어테나 누구에게던지 안가는데가 업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밤이나 낫이나 항상 쉬지안코 아희게도 청년에게도 장년에게도 로년에게도 다 가는것이다 그리고 왕궁에나 관청에나 공장에나 상점에나 농촌에나 빈민굴에나 오라는데는 업서도 갈데는 만타는 겨으로 분주히 왕래한다 성경에 일으기를 「사람들이 편안하고 튼튼하다 말할 때에 곳 해산 기약이 아해밴 녀인에게 이름과 갓치 멸망이 홀연히 이르리니 결단코 면치 못하리라하엿다 이 손님을 무사히 돌녀보낼이는 오직 사망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잡은자 곳 마귀를 멸하신자』『예수 그리스도』이시다

質疑는 朝鮮耶蘇敎書會編輯室로

カメラと材料
釜山本町一 岩瀨寫眞機店 振替釜山七五五·電話七五五

조흔家庭工業
最高의會社·意氣잇는大事業躍進
第一 可缺의 日常生活上必要品…
第二 …
大阪港區市岡四 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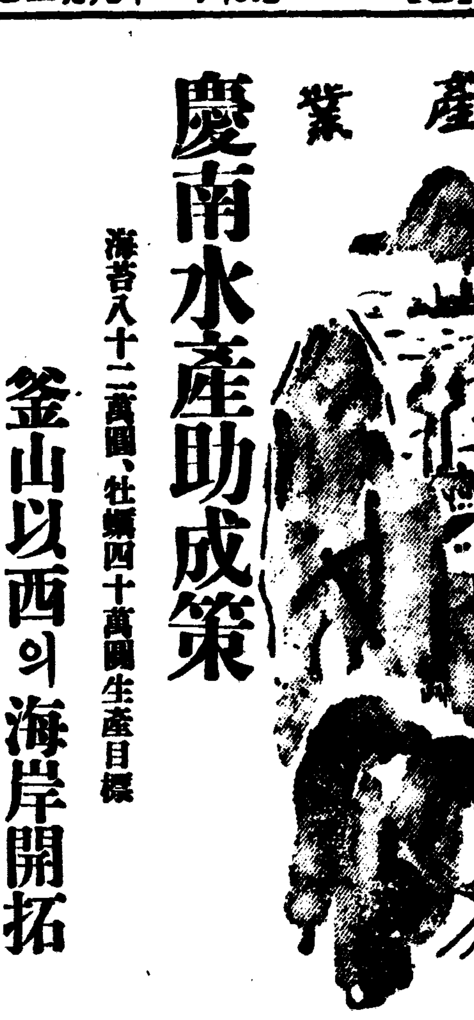
朝鮮日報 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

各種信托 低利貸出 迅速有利
京城南大門通二丁目十九番地
朝鮮信託株式會社 社長 谷多喜磨
支店所在地 群山、釜山、木浦、平壤、大邱 (營業案內贈呈)

第一劇場 鍾路五丁目 電話光二〇〇
九月一日부터三日間最終週間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劇團 慧星座 公演
◇本座文藝部…編
洋劇 死線에서 全二幕 出演 鄭東朝 崔承波 金有成
時代劇 宿命 全二幕 出演 鄭東朝 崔承波 金波玉
文藝芳 林仙奉 作
幕間 짜쓰땐드 스켓취 獨唱 合唱
一輪自轉車乘 金有成君
特別出演 尹益炳君
喜劇 高利貸金 全一幕 出演 崔浩善 金有成 文藝芳
◇崔浩善 案

桃花劇場 麻浦桃花町 電話龍山二三番
本慧星座는桃花劇場을마치고北鮮으로巡業出發하게습니다

九月一日부터三日間大公開
三大巨彈映畵鑑賞週間
每日三回晝夜興行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晝映
夜間八時始映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松竹大超特作品 佐佐木啓祐氏監督
現代名篇 お芙美の評判
主演 高杉早苗
飛田穗洲氏原作 孤軍奮鬪
活劇 無理矢理빼다ー빈



慶南水産助成策
海苔八十二萬圓、牡蠣四十萬圓生産目標
釜山以西의海岸開拓

慶南水産課에서는 每年水産業의 振興에 助成金을 支出하야 指導奬勵하고잇는바 特히 明年度부터는 水産技術員의增配와 漁船漁具의 改良普及에對하야 補助金을 交附하야 漁撈製造養殖의 各般에 亘하야 指導奬勵하는外 다시 一層 水産業의 現况과漁村振興에 拍車를 加하야 그助成擴充計劃을 實施하기로하고 다음에 沖漁船에 對하야서는 아직 不備缺陷이 잇슴으로 每年補助金을 支出하고 잇는데 明年度부터는 釜山以西의 海岸에 開發上의 第一着手로 海苔及 牡蠣增殖事業을 補助奬勵하야 現在 利用하고잇는 海苔 養殖地가 九百八十萬坪의 適地가 未開發의 狀態로 잇슴으로 이를 開拓하야 將來 海苔八十二萬圓 牡蠣四十萬圓의 生産目標로 奬勵하야 目的達成에 邁進하기로 되엇다한다

家畜의傳染病 減少의傾向
七月末現在千百三十四件

家畜의 傳染病發生은 朝鮮은有數의畜産國이면서 家畜衛生에不注意하는關係로 相當히 發生을보앗는데 近年防疫에 努力한結果 年年減少되는 傾向이며 特히 今年에드러와 그傾向을보면 七月末까지의 發生件數는 合計 一千百三十四件으로 前年에 比하야 五十三件減이며 炭疽、氣腫疽、鼻疽等及 狂犬病이 減少되엇다。 이제 그內容을 보면

	七月末累計	前年比增減(△減)
炭疽	六三	△六
氣腫疽	四二	△二六
鼻疽	三九	△二七
豚疫	二三〇	一四八
狂犬	三九〇	△一三二
計	一、一三四	△五三

그中豚疫增加는 注目되며 또黃海道에 發生되는牛의 流感은一千七百頭가되는다 道當局에서도그蔓延防止에 努力하야 斃死는殆無한모양이다

全南서蠶組聯設立

全南道內에는 現在百二十個所의 蠶業組合은 各地方의 蠶業發達上 多大한 貢獻을하고잇는 現狀인데 近年 本道의 蠶業은 더욱 邁進하게될듯따라 今後多大한 期待를갓게되는同時에 養蠶組合의 活動을 一層敏活하기爲하야 지금까지 各養蠶組合을 聯絡하는機關으로 養蠶組合聯合會의 設立은 焦眉의 急務라하야 當局과 各組合에 오래동안 協議하여오든바 於是乎 具體化하게되야 二十二日午前十一時 道小會議室에서 道內重要組合幹部九名과 殖産業部長中川技師 其他係員이 會合하야 設立委員會를開催하고 準備工作에 大綱을 決定하엿다

鰮油不定量入札
九月分朝窒에落札
價格은三圓八十錢

鰮油九月分不定量入札은 三圓八十錢으로 朝窒에 落札되엇다 約四十萬罐의 出荷를 보리라고 豫想된다 그런데 八月分定量은 旭電化에 三圓八十二錢으로 落札되엇다 數量은 十五萬五千罐이엇다

咸北에養豚、鷄旺盛

咸北의 有畜農業은 全朝鮮의代表的地方色이라고할수잇는데 其中養豚及 養鷄의 現勢는 다음과갓다

▲養豚

飼育頭數十萬一千 改良率六割五分 農家飼育率八割인데 十戶當平均을 飼育戶數에 割當하면 全朝鮮平均은 五頭三分이오 咸北은 十三頭三分에達한다

▲養鷄

飼育數 二萬五千羽
改良步合 五割八分五厘
農家의飼育率 七割八分五厘

十戶當平均은 三十三首인데 平北이 四十五首 黃海가三十四首임으로 本道는 第三位가된다한다

이번暴風雨로 棉作半減豫想
井邑地方의被害

【井邑】井邑地方은 在來山間地帶로서 他地帶보다는 比較的肥沃한便이며 氣候도 亦是 不寒不熱한 便이다 그래서 農家副業으로서 棉作을하야 每年産額 百萬斤을 突破하야 一般的으로 細農民七八千戶의 生活困難을 幾分이라도 緩和하야오는 形便인데 郡農會의 調査發表에 依하면 今年度에는 昨年度에 比하야 耕作戶數가 增加되어서 八千六百三戶에 全部耕作面積이 一千二百七十三町九反步에 收穫豫想이 百二十萬斤으로 每斤平均十六錢計算하야 十九萬二千圓의 收入을 豫想하고잇든中 去二十七日午後七時부터 翌日午前一時까지 暴風雨가 襲來하야 棉花實이 떠러저 收穫豫想百二十萬斤의 五割三分의 減收를 보게되어 實收穫豫想은 五十萬斤에 不過하야 颱風에 넘어간 損額이 十一萬二千餘圓이나 되다고한다

平南의緬羊熱 去益旺盛의一途
飼育農家一百五十戶 飼育頭數七百五十頭

【平壤】平安南道에서는 緬羊平南을 目標로 十箇年計劃의 第二年을마지하여 발서 全道內에는 緬羊熱이 대단하더이므로 明年度부터는 總督府의 大擴充計畫에 順應하여 國立種羊場의 設置까지 計畫되고잇다 그런데 七月末日現在 飼育頭數는 七百五十頭 飼育農家는 百五十戶에 達하엿고 今年一月부터 六月까지에 自然增加는 百五十頭에 達헤다한다

鐵原畜牛賣買狀况

【鐵原】江原道內의 首位를 엿보는 鐵原郡의 畜牛賣買狀况은 昭和十年度는 出場頭數一萬二千六百十四頭中 賣買頭數는 七千六百十八頭로 總價額은 五十七萬三千五十圓廿錢에 達하엿스나 前年度에 比하면 出場頭數는 百卅四頭가 減少되엿고 賣買頭數는 百卅二頭가 減少되엿는데 總賣買價額으로보아서는 四萬二千七百四十四圓五十八錢이 增加되엇스나 昭和十一年度는 前年度보다 頭數는 約二割五分增加되게되는바 그中에는 屠牛頭數가 昭和十年度에는 千五百四十二頭로 그價額이 六萬五千九百六十三圓이어섯는데 今年에는 賣買頭數나 價額이 모다 現在比例로 三割五分以上이 增加하야 賣買頭數의 增加와 價格高率은 農場이 만히 開拓됨에따라 耕牛로도 多少 增加가生하지만 屠牛로되는 增加率이 자못 큰것이라고볼수잇지안흘가한다고한다

夏秋繭基準價

絲價		掛目
六五八圓以上	六七四圓未滿	二六、五
六七四圓以上	六九〇圓未滿	二七、五
六九〇圓以上	七〇六圓未滿	二八、五
七〇六圓以上	七二二圓未滿	二九、〇
七二二圓以上	七三八圓未滿	三〇、〇
七三八圓以上	七五四圓未滿	三一、〇
七五四圓以上	七七〇圓未滿	三一、五
七七〇圓以上	七八六圓未滿	三二、五
七八六圓以上	八〇二圓未滿	三三、五
八〇二圓以上	八一八圓未滿	三四、〇
八一八圓以上	八三四圓未滿	三五、〇
八三四圓以上	八五〇圓未滿	三六、〇

青化製錬法 (二)
……金聖浩

金銀에對한青化液의作用

青化液으로서 金銀을 溶解함에는 『에루스나』氏方程式이 證明함과如히 酸素가 반다시 必要하다

$$4KCN+2Au+O+H_2O=2KAu(CN)_2+2KOH$$

(青化加里 金 酸素 水 / 青化金加里 苛性加里)

青化液中에는 自然히 空氣가 混合하야 잇는故로 此空氣中의 酸素의援助로 因하야 金銀이容易히 溶解된다。 青酸加里中의 青酸이 金銀과 化合하야 青化金又는 青化銀이되어 水에溶解된다 此時 生한 加里는 水及 酸素와 化合하야 苛性加里로된다 그리함으로 酸素의 供給이 不足할時는 金銀의 溶解가 遲延하게 됨으로 特別히 外部로부터 酸素를 供用하야 溶解槽內에 空氣를吸入하거나 또는 青化가 溶解된 溶液을 攪拌하야서 空氣와 接觸을 促進한다 混汞及 搗鑛의 青化法은 特히 此方法에依함이 普通이다。

金을 溶解하는데 要하는 青化加里의 量은 理論的으로보면 金一〇〇匁을 溶解하는데 對하야 青化加里六六匁의 比例이고 銀에對하야는 一二〇匁의 青化加里를 要하게되어 잇스나 實際는 青酸의 損失과 鑛石中에 含有하야잇는 不純物等으로 因하야 多量의 消費를 生하게되는故로 理論보다 二十倍乃至四十倍를 要하게된다

青化加里消耗의原因

作業中 青化加里의 消耗를 可及的 적게하야 青化加里를 節約함은 必要함은 勿論이다 그消耗의 原因을들면如左하다

1、『유-루스』氏及『아르푸헬트』氏에 依하면 空氣中의炭酸瓦斯는 水分과가티 青化加里에 作用하야 此를 分解하고 青酸瓦斯及 炭酸加里로되는때문에 青化加里가 消耗되나 此는 比較的 輕微하다

2、青化製錬用槽가 木製일時는 液이 吸收되어 不少하야 木質에 充分히 吸收되기前까지는 消失이 잇다 (鐵製槽이나 콩크리드製는 比較的적다)

3、青化液이 含有되어잇슴으로 此青化液은 鑛尾와함께 放棄된다

4、鑛石中에 存在한 鑛物及金屬類는 青化加里에 作用하야 此를 分解하는 性質을 가짐으로 金鑛은 硫化鐵、黃銅鑛、方鉛鑛、閃亞鉛鑛、硫砒鐵鑛、輝銅鑛等의 硫化鑛物을 隨伴함이 普通임으로 此等 鑛物은 自然히 酸化되어 硫酸及 金屬鹽을 生함으로 硫化鑛物은 그新鮮한것은 [illegible] 空氣及 水의 作用으로 因하야 一次 硫酸과 硫化鐵 又는 水酸化鐵로 變할時는 青化加里를 分解하는 作用을 呈하게된다 卽 硫酸은 青化加里를 [illegible]하야 青酸瓦斯 及 硫酸加里로되고 硫酸鐵 或은水酸化鐵은 諸種의 鹽類와가티 페-렌쓰青色色素를 生한다

捨滓의 表面、又는 滲出槽의 板合目에 往往 青色의 沈澱物이 附着하야잇는것은 即 青化加里를 浪費하는 證據이다

[illegible] 不完全하야 [illegible] 青化液에 [illegible] 又는 液의 表面에 먼저 白色의 浮渣 又는 沈澱이되어서 나타나나 後에 大氣 及 日光에 觸하야 青色으로 變하는일이잇다 此는 모두 鑛尾와 充分히 中和하지안코 青化液을 處한 證據이니 如此한時는 元來 試驗紙에 [illegible] 青化液이 酸性反應을 呈하야 보는일이잇다 鑛尾中에 黃銅鑛、硫砒鐵鑛、輝銅鑛等의 化合物을 含有하면 青化液의 强弱을 不問하고 容易히 溶解하야 銅 及 加里의 複青化鹽을 形成한다 此消耗가 甚大하다 그럼으로 鑛尾中에 銅이 千萬分之一 乃至 千萬分之二、五를 含有하면 青化 [illegible]

青化液의濃度測定法

[illegible]에 不利하다 青化法에 使用하는 [illegible]中에 重要한것은 青化液인데 此液中에 含有해잇는 游離青化物(青酸)保護 亞鉛加里及金銀의 量을 必要에 應하야 檢査하야서 操業의狀况如何를時時監督指導함을必要로하는것이다 그럼으로 青化製鍊場에서 一日三回以上의 檢定을하고 操業狀態의 良否를 調査하게된다

1、青化液의濃度檢定法

[illegible]을 省略하고 實際檢定形式만을 說明하야 實務에 便케하고저한다 檢定코저하는青化液中에서 平均으로 一定한 試液을 採取한후 其中에서 『삐-벳트』로 五〇、〇을 吸取하야 『삐-카』에 注入하고 蒸餾水 五〇〇、〇로 稀薄한後 五〇、〇의 沃度加里(一〇%)液을注入하야 잘混合한후 規定硝酸銀溶液으로 滴定하는데 一滴式 加하면 黃白色沈澱이 生한 [illegible] 보고 消耗된量으로써 青化液의 濃度를 決定한다 即 規定液(左記製法에依한것)一〇、〇의 消耗는 青化液의 濃度〇、一%를 指示하는것이다

2、硝酸銀規定液의製法

結晶硝酸銀六、五二三二瓦을 正確하게 秤取하야 一〇〇〇、〇의 蒸餾水에 溶解하야 使用한다 溶解할時는 刻度一〇〇〇、〇 容量 又는五〇〇〇、〇 容量의 硝子瓶에 먼저 少量의蒸餾水를 넣코 秤取한 硝酸銀을 徐徐히 加하면서 溶解케하야 全部溶解된 蒸餾水를 全部 注入하야 刻度까지 一〇〇〇、〇 又는 五〇〇〇、〇를 채울것이다 製造된 藥瓶은 着色옥하야 光線이 들지안케 暗所에 保存할것이다

金沈澱에關한亞鉛의作用及亞鉛消耗의原因

金은 青化液때문에 溶解하는것은 되어서 그안에 溶解하게 되어 그리하야 [illegible] 合金液을 亞鉛絲에 [illegible] 할時는 金屬은 沈澱을 生하고 其代身에 亞鉛이 溶解하게된다 其化學反應은 比較的 [illegible] 左의 方程式에 依한다

$$KAu(CN)_2+2KCN+Zn+H_2O=K_2Zn(CN)_4+Au+H+KOH$$

以上式에 依하면 金을 沈澱하게하고저함에는 液中에 多量의 遊離青化加里가 必要하다 또 金沈澱에따라서 液의 『알카리性』은 昇進함이 普通이고 또 水素瓦斯를 發生할것을 잘알것이다

日用商品市况

今一日 京城市內 雜穀市况은 大體다음과갓다

▲大麥 保合

實需閑散하며 時勢도 保合不變이다

秋麥(大邱産) 九、〇〇
春麥(南浦産) 七、八〇

▲大豆 强合

漸次端境期에入하야 在庫減少하야 益益 强勢이다 市勢는 賣主萬能化된 一途임으로 市勢는 先物時勢作用에 不過하고 現下 品貴時勢出現必至라는 觀測이 濃厚하다 今日入電에依하면

奉天 八、五〇
四平街 八、六〇

▲粟 續落

滿洲今年作况樂觀으로 實物이 豊富하고 當地在庫品의 投出續出이나 消費는 如前히 不振임으로 市勢는 續落이다 八月中最高價에比하면 八十錢假量의 暴落이다 今日時勢는

龍山 三、一〇
運長 三、〇〇
金汁 二、八〇

▲胡麻 弱含

新穀期待로 當用買以外에는 別無實買이며 上海、滿洲는 産地品貴로 依然 高價入電이나 天津은 續續實物入電이다 實買閑散하야 市勢는 保合이다

南京 一等 一五、五〇
天津 一五、〇〇

▲小麥 續落

外麥市况一息에따라 製粉側自重見送함으로 沸騰人氣도 漸次安定되며 粉價에 比하야 相當히 割高함도 事實이므로 新規豫想賣와 利喰賣가 錯綜되어 漸落되다。今日市勢는

沙里院 二〇、〇〇
新幕 一九、八〇

水害狀况에對하야
社會課長 金大羽氏談

先般의 大水害와 今回의 風水害狀况의 全貌를 말하야 參考에 供하고 併하야 不幸한 罹災者에對하야 各方面의 同情을 仰코저한다 先般의 水害에 對하야서는 이미 周知의 事實로아나 第一回水害狀况도 人畜 及 家屋에關한 計數는 確定的結果를 어덧슴으로 此際 今年의 氣候는 五月頃 까지는 至極히 順調이엇스나 六月에入하야 降雨量이 極히 적어 七月中旬까지는 비다운비는 거이오지안헛다 따라 中部 及 西朝鮮地方 即 京畿 黃海 平南 咸南 及 江原道地方에서는 移秧치못한畓이 相當히만헛다 七月二十日現在의 移秧狀况을보면 移秧未濟의畓은 六萬四千五百三十九町步로 今年移秧豫想面積의 三分八厘에 該當한다 그러나 移秧을 마친 水稻도 連日의 旱天에 因하야 漸次로 枯死狀態를 呈하야 相當히 甚大한 旱害를 豫想케되어 자못 憂慮에 不堪하얏다 따라 各道에잇서서는 極力代用作을 奬勵하야 被害의 輕減에 努力하고 잇는바 七月二十一日頃부터 朝鮮內各地方에亘하야 降雨가잇섯슴으로 多幸히 移秧未濟面積도 幾分減少를보고 또枯死에 瀕한 水稻도大部分 蘇生하야 적으히 愁眉를펴게되엇다 그런데 其後비가繼續하야 나리어七月卅一日부터八月一日에亘하야서는 全南慶南北及 咸北道管內에 二百耗를 超過하는 豪雨가 襲來하야 慶南及 咸北의 一部에 被害를 生하얏다。 特히 慶南金海邑鳳凰里에서는 沙汰로 土砂岩石이 奔流와함께 流下하야 流失、埋沒、倒潰한것 五十四戶、死者二十二名을 내는 慘狀을 呈하얏다。 繼續하야 三、四日에는 京畿道、江原道의北部、黃海道와 南部洛東江의 流域에 最高百廿七耗에 及하는 豪雨가 잇섯스나 多幸히 被害는 黃海道의一部에 꾸치고 其程度도 亦是僅少하얏다。

그後 九日부터 十二日에 亘하야서는 朝鮮의 中部以南各地에 連日 豪雨가잇서 南漢江 洛東江 錦江及 根山江의 流域에서는 雨量二百耗에나 達하고 就中 江原道原州郡에서는 十日十一日의 兩日間에 五百六十一耗 一日間에 三七五『미리』라는 驚異的數字를 示하야 從來의 記錄을 깨트렷다 是等의諸河川이 一時에 氾濫하야 流域各地는 慘禍를 蒙하게되엇는데 特히 忠北의 北部地方、及江原道 南部地方一帶에서는 急激한 增水로 山間部의 處處方方에 沙汰山崩이잇고 또 河川의 氾濫도 甚하얏는바 突發間에이러낫기때문에 多數의 死傷者를 내이어 드디어 今番災害中 가장 甚大한 被害를 惹起하얏다 實地調査를간者의 말에依하면 江原道管內의 山崩은 無慮數千個所라는 놀라운 數에 達한다한다 다음에 十四日、十五日에는 中部以南의 各地에 다시 豪雨가 襲來하야 錦江、南漢江 及 萬頃江等의 諸河川이 氾濫하야 忠北의 南部、全北의一帶及 慶南의 一部에 거듭 甚大한 被害가잇섯다 其後 繼續하야 降雨가잇섯스나 豪雨에까지는 이르지안헛슴으로 이로 水害도一段落을 지엇는가하얏더니 二十四日부터 全朝鮮各地에 又復豪雨가잇서 特히 二十七日午後六時頃 全羅南道濟州島附近에 나타난 颱風은 中心示度七一九耗를 示하야 昭和八年 慶南、全南의 海岸地方을 掩襲한 七二〇의 低氣壓보다도 훨신 優勢한 近來드물게 보는것으로 同日 午後九時 麗水附近으로 부터 朝鮮에 上陸 하야 時速四十粁로서 一路 北進하야 全南北、忠南北 及 江原道 江陵을 經하야 翌二十八日 午前六時頃 日本海로 사라젓는데 颱風圈內의 中部 及 南朝鮮地方은 거의 激甚한 慘禍를 蒙하얏다 目下 交通、通信機關杜絶의地方이잇서 被害의 全貌는 尙今不明하나 現在까지 判明된 被害만으로도 後述하는바와 가티 莫大한 數에達하고 또 一報마다 其慘禍의 增大를 보고잇다 以上 말한바와가티 先般의水害와 今回의 風水害는 其被害區域十一個道에 亘한 자못 廣範한것이고 또 被害는 局部的으로 極히 激甚하얏다

그런데 水害와風水害의 被害로서 三十一日午前九時까지에의 判明된것은 第一次水害에잇서人의死傷千四百四十一名 家屋의流失 倒潰 浸水三萬一千八十八戶 船舶의流失、沈沒 破損百二十隻 耕地의被害面積十二萬七千餘町步 農作物의 被害推算額만으로도 一千萬圓以上의 巨額에 達할貌樣이며 第二次風水害에 잇서서는 더욱 激甚한被害를보아 人의死傷千八百七十八名 家屋의 流失 倒潰 床上浸水四萬四千二百五十九戶 船舶의流失 沈沒 破損千六百五十三隻에 達하다 右外 道路 堤防 橋梁 鐵道 電信及電話等의 被害는 아직 詳細한것은 不明하나 그復舊에는 多額의 經費를 要할것은 勿論 官民一致하야 眞實로 不退轉의 努力과 更始一新、轉禍爲福의 勇氣를 要한다

此慘狀、天聽에達하자 惶恐하옵게도 天皇 皇后兩陛下께옵서는 此等罹災民御救恤의御盼附로서 多額의 御內帑金을 御下賜하옵시어 實로 恐懼感激에不堪하다 朝鮮官民協心戮力最善의努力에依하야 聖旨에奉答키를 期하고잇다

總督府에잇서서는 先般의 水害直後被害激甚地인 忠北 全北 慶南北 及 江原의 各道에 慰問使와 調査員을 派遣하야 罹災民의 慰問을 시키는同時에 被害狀况을 詳細히調査시키어 目下 其報告에 基하야 銳意各道當局과 協力하야 救濟對策을 進行하고잇다

此等不幸한 罹災者들은 多幸히 奮勵 復興에 着手하고잇스나 원체 今回의 水害는 압서말한 바와가티 極히 短時間에 突發한 災害임으로 罹災者는 或은 父母를일코 或은 妻子를 離別하는等 人生의 悲慘事에 遭遇하얏슬뿐아니라 居住하려도 집이업고 耕作하려도 土地가업스며 또 그殆半은 家財道具를 꺼낼餘暇도업서 無一物로 겨우避難한 狀態로 朝夕命氣가 더하고잇는 昨今의 此等罹災者의 窮乏困憊는 惻隱同情에 不堪하는 實狀이다

따라財團法人朝鮮社會事業協會에서는 在京城七新聞社、日本赤十字社 朝鮮本部 及 愛國婦人會朝鮮本部의 後援을어더 널리 江湖의 仁人에게 부르지저 目下 義捐金品을 募集中이다 義捐金品은 總督府社會課內의 朝鮮社會事業協會本部 又는 各道支部後援新聞社와 日本赤十字社朝鮮本部、愛國婦人會朝鮮本部外全朝鮮各府、郡、島、邑、面에서受納하게 되엇스니 金額의多寡를 不拘하고 喜捨하야 주기바란다 또衣類、毛布、타올等도 헌것도 無妨하니 罹災者의 窮狀을 생각하야 應募하야주기바란다

主要한副業展望
(十二) 綿虫寄生蜂은 어떤것
……鄭求興

苹果의 害虫은 만치만 綿虫가티 그害가 甚한것은 업슬줄안다 그러면 이가튼 害虫이 朝鮮에 輸入된것은 어느때가? 綿虫이 처음으로 朝鮮에 드러온것은 距今約二十五六年前일가하며 最初發生地는 鎭南浦、三浪津이다 今日에 至하야는 平安北道、咸鏡南北道、江原道以外는 各地에 蔓延하야 大害를 끼치고잇는데 該虫을 退治할 敵은 極少하야 僅히 草蜻蛉、瓢虫類가 捕食할뿐이오 大多數는 藥品으로 不完全할지나 綿虫의 繁殖을 抑制하고잇섯다 그러나 이藥品에도 多大한 經費가 들며 每年 잘못하면 그實施를 게을리하는일도만헛다

이에 米國에 이綿虫에對한 天敵 即・寄生蜂이잇슴을알고現水原農事試驗場 中山技師가그의 學友 『좌일드』氏에게 依賴하야 昭和六年에 輸入하얏다 最初는 苹果栽培로有名한 青森縣苹果園에 試驗하얏다 그結果가 甚히 良好함으로 昭和九年大邱農事試驗場에 移入試驗하얏다 最初는 朝鮮氣候는 日本內地와달라 寒氣가 甚하야 寄生蜂의 越冬에對하야念慮하얏스나 多幸히 無事하얏슴으로 漸漸 寒地 即 水原 鎭南浦等地에 옴겨 試驗을거듭하얏다 以上 兩地方 亦是 越冬에 無難함을따라 本格的으로 全朝鮮에 寄生蜂法을研究하기로하야 今日에 至하얏다

綿虫寄生蜂은어떤經路로發見하얏던가

距今八十五年前 『하-뗄덴』氏가 發見하야 『아페리누스말리』라고 命名하얏스나 그利用方法을 研究하게된것은 最近에 佛國『마-칼』氏로부터서가 아닌가한다 其後 漸漸 有望한 事實을 目擊하자『호와-드』氏가 大大的으로 利用하얏다 『마-칼』氏는 其後 『루-마니아』『모록코』諸國에도 分讓하야 世界各國에 傳播되엇다 日本에 輸入된것은 昭和六年이엇스며 其後 青森縣農事試驗場豊島在寬氏에 依하야 權威的으로 日本內地에 固定하게되엇다

成虫은그形態가어떠한가

黑色의 小蜂으로 同性에大小는잇스나 雄蜂은 더욱 적음으로 異性과 區別이 分明하다 頭部黑色 觸角은基部黑色으로 先端은 黃褐色을 呈하고잇다 胸部黑色 四翅는透明膜狀으로 좀 暗色을 띄엇스며 腹部는 黑色이오 胸部에接한 基部는 環狀黃白色을 呈하고 잇다 雌蜂은 腹部에 産卵管을 가젓스나 平素에는 體中에 감추엇다가 産卵時만外部에 露出한다

出現期

春期 成虫의 出現은 四月下旬으로부터 五月上旬이며 이때에는 蜂의 大多數는 羽化한다 室內에서 特別保護로 越年한 蜂은 三月下旬이면 出現한다 一方 綿虫은 幼虫態로 越年한것이 일즉 四月下旬으로부터 五月上旬에나타남으로 寄生蜂繁殖上 더욱 有利한話이다 如此한 關係上 寄生蜂은 마음대로 綿虫에 産卵하여 或 어떤때는 綿虫의 繁殖보다 寄生蜂의 繁殖이 盛大함으로 一時 食物에 困難한때도업지아니하다

常態

蜂은 날기는하나 그다지 遠方까지는 날지못한다 但 바람으로 因하야 他動的으로 나는것은 別問題이다 蜂은 苹果의葉 或은 枝間에 飛翔하며 교묘히 姿體를 감추며 또는 快活하게 運動한다 快晴한 날은 特히 雌蜂의 發動이 活潑하야 綿虫의 體上에 産卵한다

壽命

成虫의 壽命은 一般으로짧다 大槪 二週日假量이다 豪洲니-만氏의 調査에依하면 雌蜂은 五-七日 雄蜂은 三-五日의 壽命이라한다

越冬

九月下旬으로부터 十月上旬에이르러 成虫의 數가 減하야 自然致死할때는 寄生을바든 綿虫은 適當한 場所에 潛伏하며 或은 枝間에 덩어리로모이어 越冬狀態에드러감으로 其體內에잇는 寄生虫의 幼虫도 漸次 發育을 停止하야 越年狀態에이르게되엇다

假令 宿主의 體內에서 越年하는 寄生虫이라할지나 朝鮮가티 冬期(中部以北은 零下十八、九度가 몃칠이던지 連續하는地方)嚴寒한 地方에서 果然 本虫이 固定될가 至極히 念慮하야 大邱、水原、鎭南浦서 一齊히 試驗하야보앗다 南朝鮮大邱서는 野外에서 自然狀態下에 越冬하야 三月下旬에 羽化한것을 發見하얏슴으로 大邱地方의 無難은 알엇다 中部以北地方의 試驗成績을보면 自然狀態下에잇는것及 飼養框內의것 合一〇九匹中十三匹이 致死하야 九〇、六%의 成績이엇슴으로 이것亦是 越冬可能을推知하게되엇다 越冬場所는 多樣으로 寄生을바든 綿虫은 어떤者는 樹幹을올나와 根邊이든 地中에 드러가도잇고 或者는 落葉미테드러가서 越冬하기도한다

寄生狀况

寄生蜂의 寄生狀態를보면 綿虫의 老熟에갓가운것이나 老熟한것을 차자 産卵한다 寄生을바든 綿虫은 漸次 附着한 綿絲가튼것을 일허버리게되어 體色이 黑色으로됨으로 寄生蜂에 걸리고 아니걸린것은 一見區別할수잇다

寄生蜂은 大槪 綿虫體內에 一卵을 産下한다

寄生虫은 成虫이 産卵하고 幼虫은 産卵치못하며 寄生虫의 世代가 短期間임으로 一時에 綿虫을 全部 驅除하기는 困難하다 또한綿虫과가티 地下部에 侵入치는못함으로 언제던지 地上部에限하야 寄生한다

그러나 一次 苹果園에 寄生蜂을 放置하면 漸次 每年 發生하야 結局 몃해를 가지아니하야 綿虫은 完全히 驅除된다

寄生蜂의繁殖及固定

寄生蜂을 一園에 固定식히려면 第一綿虫의 發生이만흔나무를 選別함을 要한다 少數의 蜂을 數株의 樹에옴기는것보다 차라리 一樹에만히繁殖식힘이조타

寄生蜂에는 蜘蛛等의 外敵이잇슴으로 이것을 防止하기爲하야 蜂이 附着한 樹는 繁殖框을 세우고 그우에 寒冷紗를 씌우면 조타 이點에對하야 試驗場에서 試驗한結果 框을 使用함이 良好하얏다

接種方法

蜂을 接種하려면 原園에갓가운 場所에서 그生活狀態를 잘보아 成虫을 그대로 옴기이 조타 普通寄生한 綿虫이 附着한 小枝를 長五六寸쯤베여 이것을 接種園一木에 옴기면조타 그리하면 羽化한蜂이 여기저기 飛翔하야 綿虫에 寄生할것이다

利用價値

以上말한바와 가티 寄生蜂이 朝鮮에 固定될可能性은 充分함으로 今後는 그利用價値를 決定할 必要가잇슬줄안다 아즉 寄生蜂이 朝鮮드러온지 時日이얏고 研究도 充分치못하다할지나 昭和十年의 實績으로보면 利用價値가 充分한줄로안다 但 接種後 二三個年間은 保護區를 만들어 繁殖框을 使用함이조흘것이다。

藥劑와寄生蜂의關係

여기에 [illegible] 果園은 年中 十餘回內外의各種藥劑를 撒布하는데 이藥劑가 寄生蜂에 어떤 影響을줄가하는것이다 이點에 對하야 水原試驗場에서 昭和十年 硫酸니고친、石灰硫黃合劑、砒酸鉛石灰等 藥劑로 試驗하얏다 그結果 石灰硫黃合劑 及 砒酸鉛石灰를 撒布하고는 九〇%以上 寄生蜂이 生殘하얏스며 硫酸니고친을 撒布한區는 七五%의 寄生蜂이 生殘함을確實히 알엇다 勿論 外部에露出한 蜂은 綿虫과가티 多少 死滅하나 綿虫內部에잇는 蜂은 勿論 生存하고잇스니 그다지 藥劑로 근심할 必要는 업슬것이다。

苹果栽培者가寄生蜂을어드려면어떤方針으로할가

水原農事試驗場에 分讓願을내면 수잇는데까지는 便宜를보아줄것이며 그飼育方法도 잘알려줄것이다 만약 水原試驗場에 餘分이업다할지면 現在만흔곳을알려 될수잇는대로便利를보아줄것이니 苹果栽培者는 此點도 注意하야줄것이다

鑛業權設定・移動
◇鑛業代理人屆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鑛業權者	事項
一一五五三、一一五五四、一一五五五、一一五五六、一一五五八、一一五五九、一一五六〇、一一五五七、一一五六一、一一五六二、一一五六三、一一五六七	江原三陟郡所達面 / 同所達面下長面 / 同所達面上長面	朝鮮電力株式會社	三陟郡所達面井野鶴次郎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八月八日屆出
一一五六四、一一五六五	同所達面上長面下長面 / 同上長面下長面	同	同
一一五六六、一一五六八	同上長面	同	同

黃昏 (171)
韓雪野作 安夕影畵

대체 (二)

사장의 질문을 들으며 주임은 속으로 술먹시 악이 올랏스나, 수십년동안 남의 머아래에서 다가진 그의 침착은, 일시의 흥분과 분노를 누르고도 남음이 잇섯다.

그래서 잠자코 뭇고만 잇다가 더욱 불안한표정으로 몸을 웅그리고

『네 대단 황송한 일이올시다……만, 제생각은 크잔흔일이고하니 사장영감께까지 알리실거업시 무폐하게 만들자는것 인뎁쇼……』

『글세 잇슨일을 엇더케 엽센다는말요? 두엇두면 엇새는거요?』

『아니올시다. 모두를 보기전에 죄다 빼아서 버리고, 또그후에도 아무일……』

『아무일 업슬걸 엇더케 알우? 이러케 신문에까지 나도 아무일업단말요? ……회사의 명예손상이지, 주(株)갑시 떠러지지 제품(製品)시세가 싸지지, 경쟁자들이 쾌해허지, 비웃지……그러면 대체 내얼굴이 엇더케 되겟소? 그래도 아무일 업단말요?』

하고 사장이 이어서 중얼부언하며 모라세웟스나 주임에게는 발명할 아무말도 업섯다。

그래서 이윽히 생각 하다가 말을 돌려가지고、

『이것은 꼭 한두놈의 작난인뎁쇼……아마 그놈들이 또울 이르지못해서 신문사에 찔럿나봅니다』

하고 한번 야단스런 수완을 그장본인의 머리우에 내리겟다는듯이 억개로 숨을 쉬며 무슨 결심이잇는듯한 기세를 뵈엿다。

『그래 그놈들을 조사햇소?』

『네、아직……』

『아직이라니? 그러면 여태펄하고 잇섯소?』

하고 사장이 추궁하는 바람에 주임은 그만 대답이 맥혀서 공연한말을 또 꺼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두손을 합장하고 꽁꽁주무르기만 한다。

『그놈들을 조사햇는가말요?』

『네、곳……알어내지요네』

하며 주임은 무료해서 다시 신문을 집어들엇스나 글자가 또독히 보이지안코 신문지장은 손만 가늘게 떨리는것이엇다。

『인제 알어내!』

사장은 배앗듯이 이러케 밀하고는 이어서

『나가서 각과담당을 불러오우 그리고 집은 종이도 가저오우』

하고 엄연한 명령을 내린후 [illegible] 조심조심 걸어나가는 주임의 뒤에

『무슨일들을 그러케 하구잇담 엥이……』

하고, 신문을 들어 테블우에 탁내려노앗다。

얼마후에 각과담당들이 주임의뒤를 따라 들어왓다。 주임이 미리 무어라고 말한판게이지, 그러지안흐면 권력에 충실한 일상의 버릇 때문이지 모두들 지나치게 황송한 동정이다。

『그리들 안저』

사장이 두번째 이러케 소리치는 바람에, 겨우 집어먹은듯이, 푹석푹석한 장의자에 풍덩 들어안든 조방실(粗紡室)검동이 담당은 단방, 떡이 벙적 소삿다。 금시 의자밋구영이 펑 빠지는것가티 깁히 들어갓기때문이다。생래 처음 안저보는 안락의자의 푹은한 맛이, 쩔렁하는 놀램에 쪼기여 한참이나 뚤아오지 안헛다。

사장이 뭇는말에 그들은 대개 비슷비슷한 대답을 하엿다 그들중에는 평소 감정이 피차 조치못한 사람도 잇섯스나 이자리에서만은 그런것을 게관할 사이업시 거진 가튼 의견을말하엿다。

『한두놈이 자라섭아 한겁지요.』

하는 말과

『금후는 별일 업슬겁니다』

하는 아까의 주임 의견과 어슷비슷말이 그들의 의견의 거이 전부엿다。

그러나 사장은 그들의 말을 그대로 신용하려고 하지 안헛다。그는 주임이가저온 종이를 드려다보다가

『배포유한 소리들말어。조고만 일이라도 차차 커지는법이야: 그런불치한놈들이 잇스면 웨발서처치를 못햇서?』

하고 사장은 여전히 노기를 품은 소리로 힐책하엿다。

『네、물론 평소부터 알어내라구야 할지요만、사장영감께서 취임하신 이래로는 모다들 근실히 일들하고해서 어디 좀처럼 알아낼수잇서야말입죠』

하고 류면실(梳綿室)담당이손구락사이를 버려 사개를 돌려가지고 비비틀며 말하자、그와 제일 감정이 조치못하든 타면실(打綿室)담당이 곳 그말을바다、

『네、그럿습니다。사장영감께서 오신후로는……』

하고 참됨 표정으로 전사람의말을 보조해주엇다。